

2026

國際書法藝術聯合 釜山支會展

- 서예와 함께하는 영남의 절경 -

2026

國際書法藝術聯合 釜山支會展

# 2026 國際書法藝術聯合 釜山支會展

- 서예와 함께하는 영남의 절경 -



社團  
法人

國際書法藝術聯合韓國本部 釜山支會





2026

# 國際書法藝術聯合 釜山支會展

- 서예와 함께하는 영남의 절경 -

전시기간 \_ 2026. **6.17**(수) – **6.23**(화)

전시장소 \_ 한새갤러리(부산교육대학 내)

초대일시 \_ 2026. **6.17**(수) 오후 **5시 30분**



본 도록은 2026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모시는 글



### 제22회 영남지회 회원전 개최에 즈음하여

붓을 잡은 손끝에 세월이 쌓이고, 먹향 속에 우리의 인연이 깊어왔습니다.

1988년,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 7개국이 한뜻으로 모여 국제서법예술연합(國際書法藝術聯合)을 결성하였습니다. 붓과 먹으로 국경을 넘고, 예술로 마음을 잇겠다는 뜨거운 다짐이었습니다. 한국본부는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 선생님께서 초대 이사장을 맡아 전국 각 지회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이듬해 영남지회가 결성되고, 1990년 부산문화회관에서 첫 순회전시의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가슴 깊이 살아 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서 영남지회의 첫걸음을 함께했던 소생이, 이제 일곱 분 역대 회장님들의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 제12대 회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깨에 얹히는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그 무게를 감당케 합니다.

우리 영남지회는 22회에 걸친 국제교류전과 정기전을 통해 동아시아 서예의 맥을 곳곳이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한층 활발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간절히 청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영남지회의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영남지회를 지켜온 주인공입니다. 묵묵히 정진해오신 그 뜻과 열정이 이번 제22회 회원전을 통해 활짝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함보다 깊이, 기교보다 정신을, 그 길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26. 6. 17.

(사)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영남지회 회장 **조 승 혁**(수린)

## 축 사



### 먹빛의 예술혼으로 영남의 절경과 문화적 울림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교류전이 되길 바랍니다.

(사)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영남지회의 ‘2026 국제서법예술연합 영남지회전—서예와 함께하는 영남의 절경’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영남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정신의 풍경을 서예예술로 풀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서법예술연합은 1988년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동아시아 문화권의 예술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창립된 이후, 서예를 통해 국가와 세대를 넘어 문화적 공감과 예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 1989년 창립된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영남지회는 오랜 시간 지역 서단의 중심에서 전통 서예의 계승과 현대적 확장을 함께 고민하며, 지금까지 22회의 국제교류전과 정기전을 개최해왔습니다. 이는 서예가 지닌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오늘의 시대 안에서 꾸준히 되살려온 문화적 발자취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서예와 함께하는 영남의 절경’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연과 인간, 시와 서, 정신과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동양예술의 깊은 미학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영남의 산과 강, 바다와 들녘, 그리고 오랜 세월 문인과 예술가들의 사유가 머물렀던 풍경들은 자연의 재현을 넘어 우리 정신문화의 원형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또한, 각자의 필선과 먹빛으로 표현한 옛 시인들의 문장과 자연의 정취는 서예의 선은 마음의 결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술이 지닌 치유와 성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국제서법예술연합 영남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국제교류의 노력은 지역예술의 가능성을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실천이라 여겨집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서예라는 공통의 예술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은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연대와 상생을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예술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시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문화예술 향유의 폭을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가 참여 작가 여러분께는 예술적 성취와 교류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 관람객들에게는 영남의 아름다운 절경과 서예의 깊은 정신세계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영남지회 조승혁 회장님과 운영 관계자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전합니다.

2026. 6. 17.

(사)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최 장 락**



## 제22회 영남지회 회원전 개최를 축하하며

2026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부산지회에서 개최하는 「서예와 함께하는 영남의 절경」전을 축하합니다.

특히 올해는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조 승 혁 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취임을 축하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영남의 절경 전을 추진하신다니 더욱 새롭고 알찬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장정희 지회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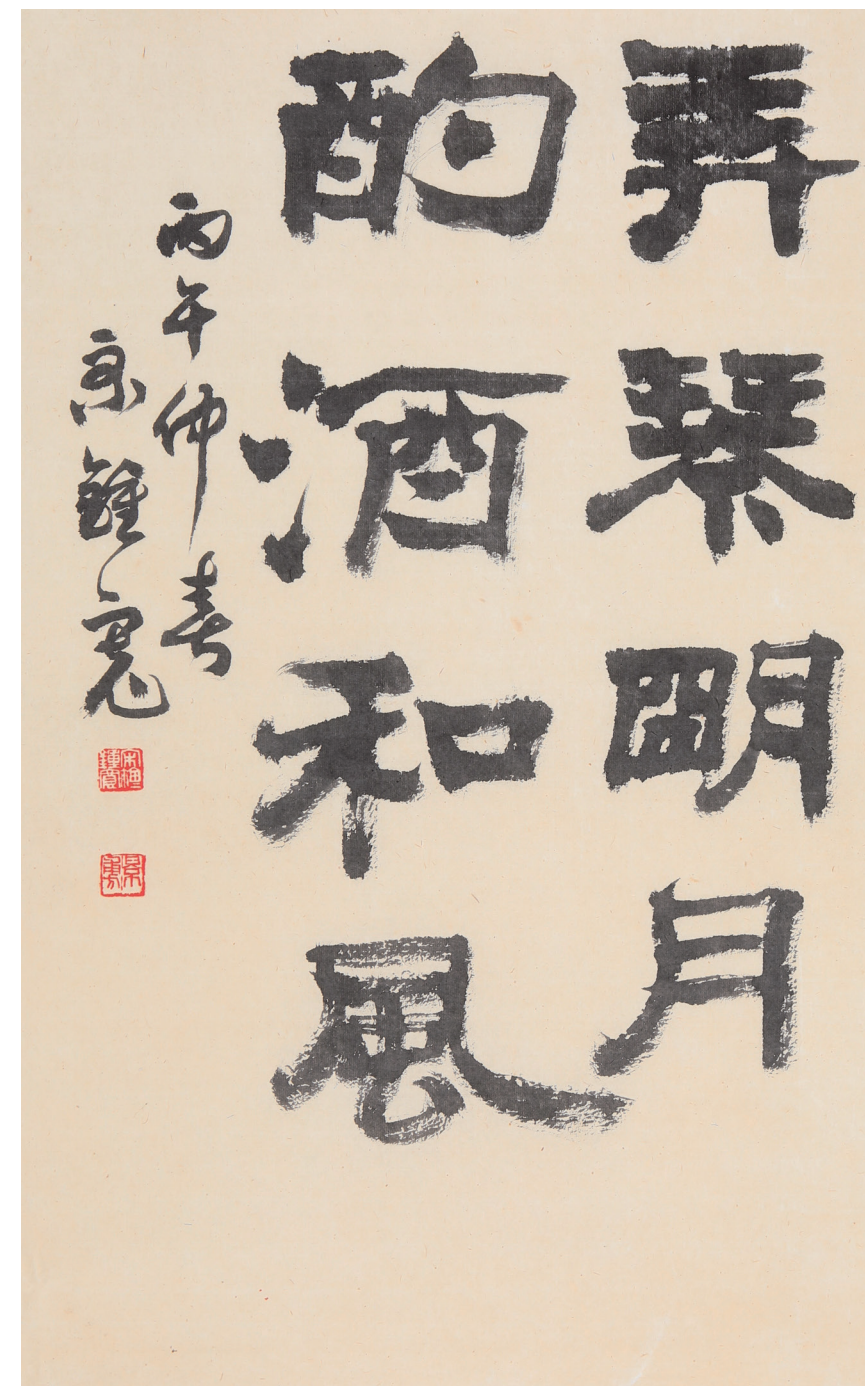
영남에는 아름다운 절경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경을 노래한 글을 글씨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움을 더하니 더욱 그 절경이 빛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하신 임원과 회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진승을 기원합니다.

서예는 자연에서 비롯되었기에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신품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이 자연을 노래한 글을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신다니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이 신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지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서품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17.

(사)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이사장 **송 종 관**



明月 和風  
명월 화풍

弄琴明月 농금명월  
酌酒和風 작주화풍

달 밝은 밤에 거문고를 타고  
화창한 봄바람 속에 술을 따른다.

경부 송종관 景勇 宋鍾寬

한양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 (사)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이사장  
(사)한국서예가협회 명예회장 / 무심서학회 회장  
송종관미술관 관장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1401호 (종로오피스텔)  
Mobile : 010-9409-0022



作品目次

|    |                                                                      |     |                                                        |
|----|----------------------------------------------------------------------|-----|--------------------------------------------------------|
| 08 | 우남 조승혁 友南 曹丞赫<br>般若心經 반야심경<br>梁山 臨鏡臺 詩 양산 임경대 시                      | 26  | 슬에 서영숙 以敬 徐英淑<br>권상일 시 · 반구대<br>조동화 시 · 나 하나 꽃 피어      |
| 10 | 석정 김성균 昔亭 金晟均<br>無所有 무소유<br>李伯時 · 友人會宿 이백 시 · 우인회숙                   | 28  | 소정 왕선미 素汀 王善美<br>해운대에 올라<br>嶺南樓 영남루                    |
| 12 | 석당 공병찬 石堂 孔炳贊<br>은혜<br>過鞍谷 과안곡                                       | 30  | 동화 정국례 東和 鄭局禮<br>감사<br>문희숙님 시조 · 위로                    |
| 14 | 채운 장정희 彩雲 張貞姬<br>七佛庵 칠불암<br>通度寺 통도사                                  | 32  | 벽산 박화자 碧山 朴花子<br>임영창님의 산이 날 오라 한다<br>한용운님의 나의 길        |
| 16 | 여숙 정의림 如粟 鄭義霖<br>論語句 · 懷德 논어구 · 회덕<br>圃隱先生 詩 · 題驪興樓 포은선생 시 · 제여흥루    | 34  | 재림 성철정 栽林 成哲井 34<br>遊山歌 중에서 유산가 중에서<br>崔冲 詩 絕句 최충 시 절구 |
| 18 | 반석 김준오 盤石 金俊五<br>금정산도<br>통도사 자장매                                     | 346 | 두암 신종주 斗巖 慎宗柱 36<br>鑑古戒今 감고계금<br>高駢 · 山亭夏日 고병 · 산정하일   |
| 20 | 지원 박무숙 芝苑 朴戊淑<br>西山大師 詩 · 四時靑 서산대사 시 · 사시청<br>밀양 아리랑                 | 38  | 덕곡 전영숙 德谷 田英淑<br>하주용님 시 · 화엄벌에서<br>한용운님의 고대 중에서        |
| 22 | 보림 양보성 保林 梁普星<br>李齊賢 先生 詩 · 處容 이제현 선생 시 · 처용<br>정일근님 시 · 반구대 암각화 앞에서 | 40  | 지유 박영선 智裕 朴瓊善<br>絶影島 절영도(영도)<br>海雲臺 해운대                |
| 24 | 지운 김정희 芝云 金貞姬<br>秋聲賦 추성부<br>부산에 가면                                   | 42  | 유촌 하태영 侑邨 河泰榮<br>安土敦仁 안토돈인<br>曹植 · 德山卜居 조식 · 덕산복거      |

|    |                                                                                   |    |                                                                        |
|----|-----------------------------------------------------------------------------------|----|------------------------------------------------------------------------|
| 44 | 시우 주은숙 蒔雨 朱恩淑<br>般若心經 반야심경<br>秋日絶句 추일절구                                           | 62 | 가천 임성애 佳泉 林聖愛<br>석가모니 법어<br>書譜 句 서보 구                                  |
| 46 | 아천 홍진숙 雅泉 洪眞淑<br>능소화<br>杜甫 詩 絶句 두보 시 절구                                           | 64 | 호암 하종길 乎庵 河種吉<br>李伯時 · 早發白帝城 이백 시 · 조발백제성<br>魏野 時 · 尋隱者不遇 위야 시 · 심은자불우 |
| 48 | 장곡 신재범 長谷 慎栽範<br>梅月堂 先生 詩句 · 見巖寺 매월당 선생 시구 · 현암사<br>搜勝臺次退溪先生韻 수승대 퇴계 선생 시를 차운하다   | 66 | 보취 강순선 步就 姜旬宣<br>蘭自蘭 난자란<br>山房山 산방산                                    |
| 50 | 도연 박효숙 陶蓮 朴曉淑<br>박영수 시조<br>묵죽                                                     | 68 | 문당 송미숙 雯堂 宋美淑<br>滿堂和氣 만당화기<br>金富軾 先生 詩 김부식 선생 시                        |
| 52 | 소원 유미선 小苑 柳美善<br>홍매<br>묵죽                                                         | 70 | 수빈 박명호 秀彬 朴明鎬<br>장미<br>해바라기                                            |
| 54 | 하정 이순자 荷庭 李順子<br>노자 · 도덕경 2장<br>노자 · 도덕경 23장                                      | 72 | 고봉 김상찬 古峰 金相燦<br>法性偈 법성게<br>金剛經 偈頌句 금강경 계송구                            |
| 56 | 정운 방경은 靖云 方卿銀<br>福 복<br>도연명 · 귀거래사 句                                              |    |                                                                        |
| 58 | 호천 정 묵 瑚泉 鄭 默<br>鄭欽之 先生 詩 · 甲山邑館 정흠지 선생 시 · 갑산읍관<br>鄭襄明 先生 詩 · 石竹花 정습명 선생 시 · 석죽화 |    |                                                                        |
| 60 | 우림 김용욱 于林 金龍郁<br>法性偈 句 법성게 구<br>證道歌 句 증도가 구                                       |    |                                                                        |

煙島蒼々水溶溶 鏡裏人家對碧峯  
何處孤帆飽風去 瞥然飛鳥杳無踪

梁山 臨鏡臺 詩  
양산 임경대 시

烟巒簇簇水溶溶 연만족족수용용  
鏡裏人家對碧峯 경리인가대벽봉  
何處孤帆飽風去 하처고범포풍거  
瞥然飛鳥杳無踪 별연비조묘무중

안개 낀 봉우리 뻥뻥하고 물은 넓고 넓은데  
물속에 비친 인가와 푸른 봉우리는 마주하고 있네.  
외로운 돛단배는 바람 따라 흘러가고  
아득히 나는 저 새 날아간 자취 없노라.

梁山先生詩  
丙午夏友南

佛僧咒虛無大三波想罣般无無明法眼是不示色石多觀  
韓紀揭曰故等神善羅究礙若得老亦無耳故生後即舍時自摩  
國二諦揭說等咒提蜜竟故波以死无眼鼻空中滅是空子見菩般  
石千菩諦般咒是大知故槃有蜜所元明乃身無色垢利即不蘊行波  
經五提揭若能除明般得三恐多得苦盡至意色无淨是色空度若多  
都百娑訶羅蜜切是波耨諸遠心菩滅至意色无淨是色空度若多  
監七婆訶羅密切是波耨諸遠心菩滅至意色无淨是色空度若多  
友十訶羅密切是波耨諸遠心菩滅至意色无淨是色空度若多  
南年 揭多苦真上蜜羅依顛罣埤埤依亦尔无觸無滅相識色苦蜜  
書月 裝波即實咒多是藐若夢無依亦尔无觸無滅相識色苦蜜  
譯羅說不是是藐若夢無依亦尔无觸無滅相識色苦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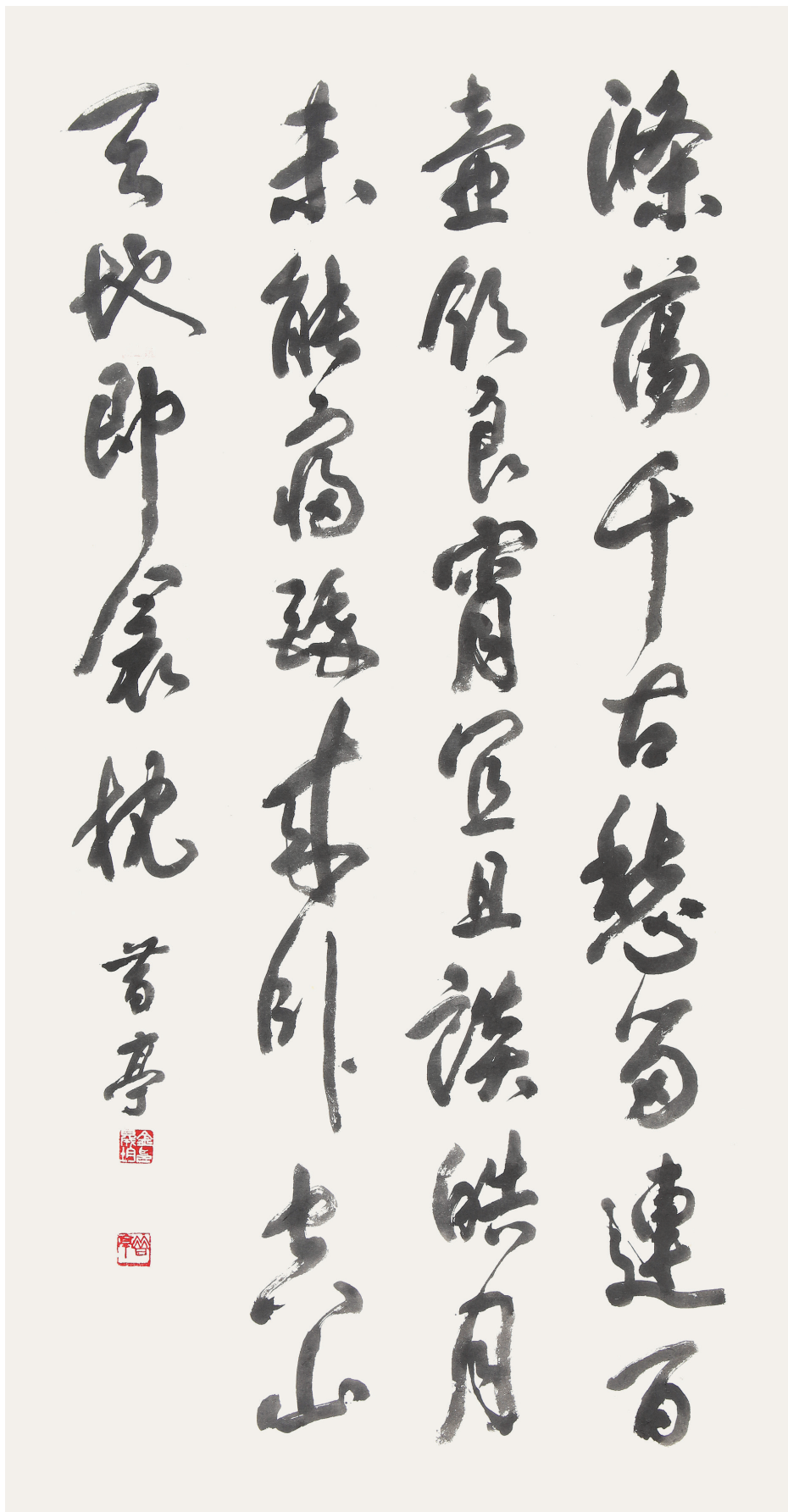
般若心經  
반야심경



우남 조승혁(수린) 友南 曹丞熾

불교학 박사 / 개인전 3회, 그룹전 270여 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서울 玄玄書塾, 부산 韓國禪書畫研究院, 양산 三亦書舍 主宰  
YouTube 서예명가TV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42-1, 3층(한국선서화연구원)  
Mobile : 010-8937-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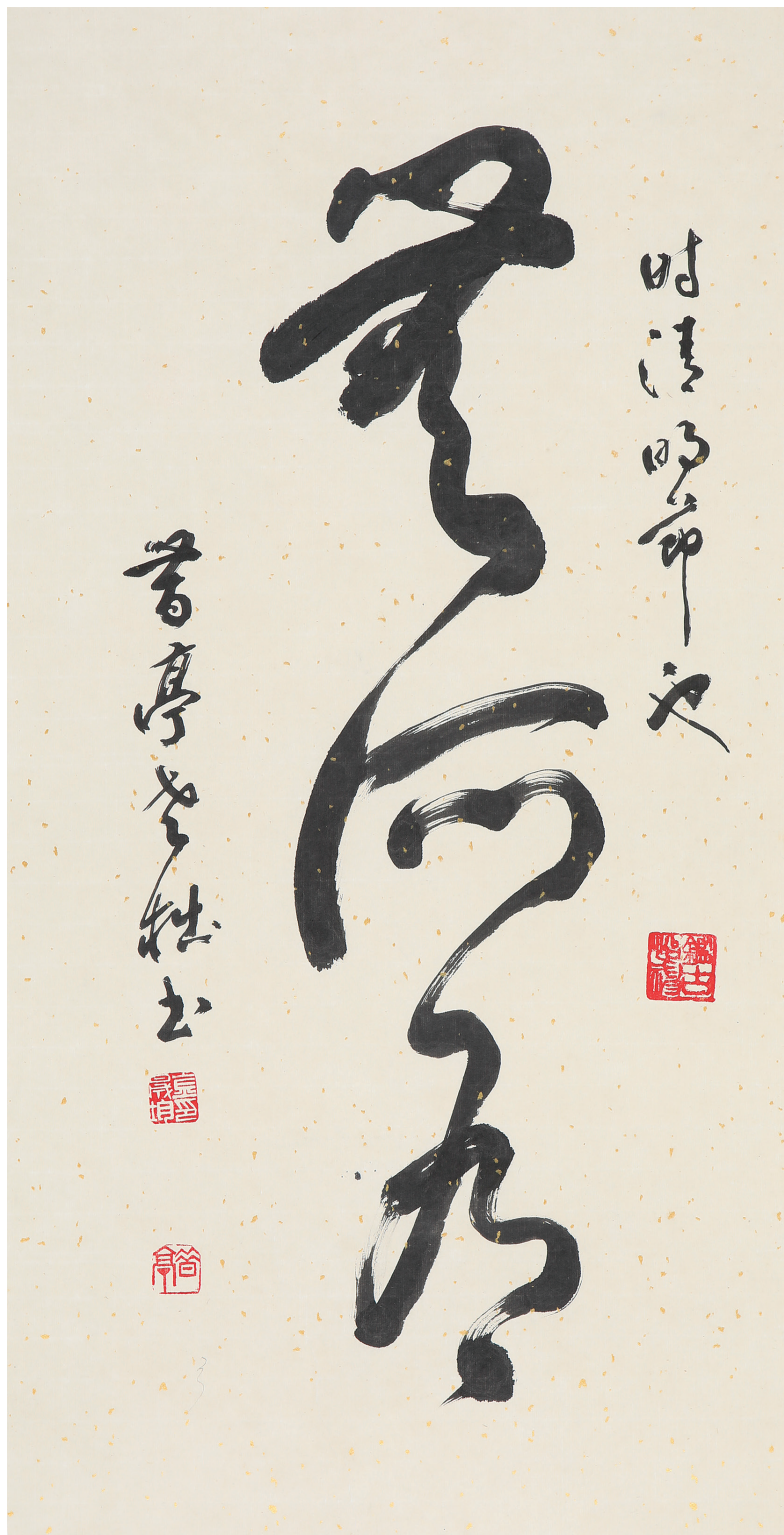




李伯時·友人會宿  
이백 시·우인회숙

滌蕩千古愁 淸堂천고수  
留連百壺飲 유련백호음  
良宵宜且談 양소의차담  
皓月未能寢 호월미능침  
醉來臥空山 취래와공산  
天地則衾枕 천지즉금침

친고의 시름을 씻어버리며  
놀러앉아 백 병의 술을 마신다.  
좋은 밤은 마땅히 얘기로 지새울지니  
밝은 달빛에 잠들지 못하네.  
술 취하여 빈 산에 누우니  
하늘과 땅이 곧 이불이요 베개로다.



無所有  
무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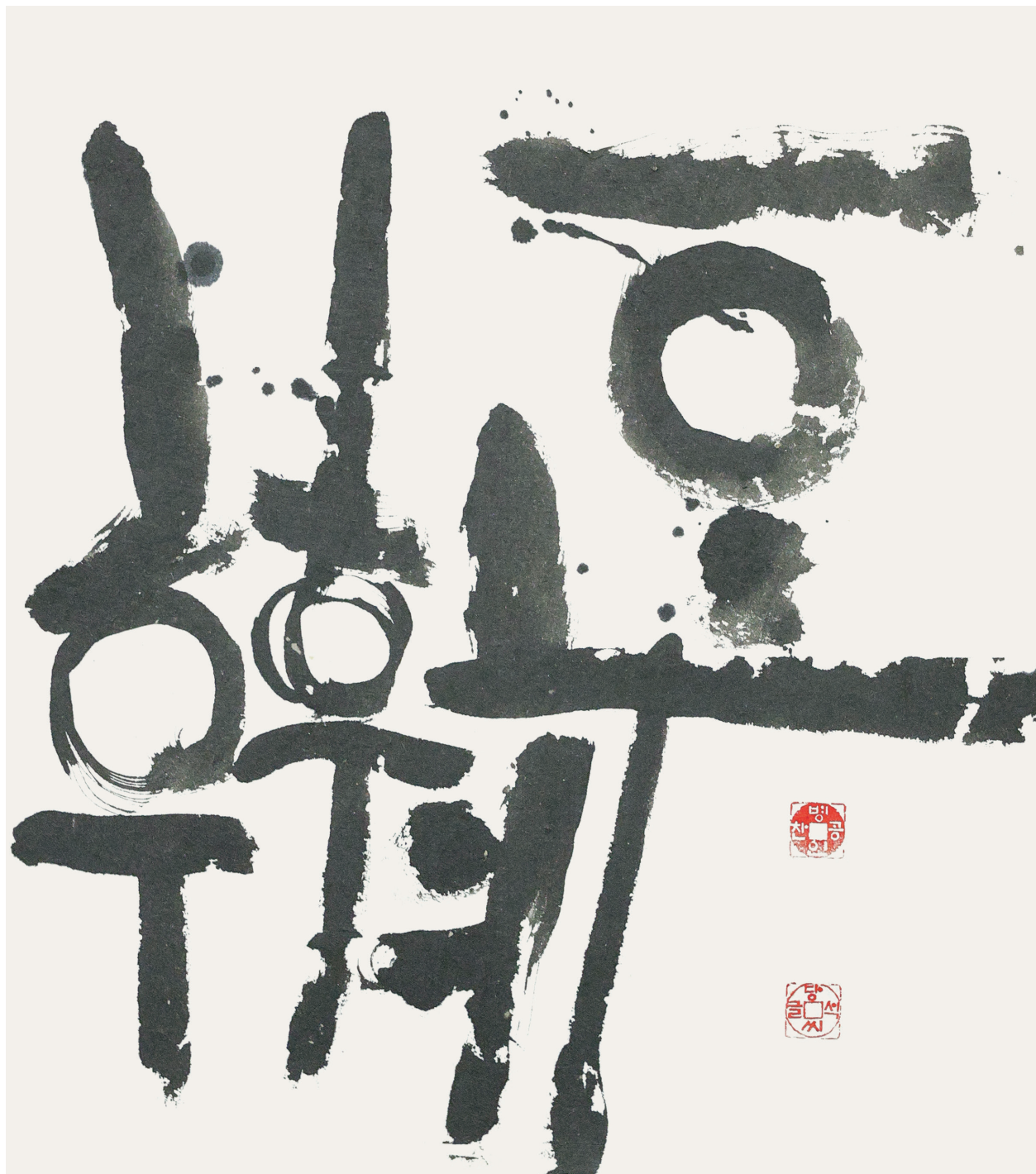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여  
마음속에 집착과 분별함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석정 김성균 昔亭 金晟均

부산, 경남 문화재 위원  
우산실기 외 문집번역 다수  
부산미술원로작가회 회원  
부산시 중구 대청로99번길 4-1, 4층(일신서예원)  
Mobile : 010-3848-0001





은혜



석당 공병찬 石堂 孔炳贊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사 역임, 심사 / 개인전, 단체전 350여 회, 심사 60여 곳  
국무총리상, 한국예총상, 창원시장상, 경남·전남 미술인상 수상  
경남미협 추진위원장, 부이사장, 부회장(현)  
경남 창원군 창녕읍 하동길 2-18  
Mobile : 010-3568-9287



過鞍谷  
과안곡

泉清心覺爽 천청심각상  
境異興過飛 경이흥천비  
煙霞吾有癖 연하오유벽  
花鳥爾忘機 화오이망기  
샘이 맑아 마음이 시원하고  
경계 달라 흥이 훌쩍 날아오른다  
풍경을 좋아하는 나의 버릇에  
꽃과 새들 기미를 잊었구나



客尋迷處入空林，日照青林駐晚鐘。  
 樓外清溪外，舟中綠樹綠松。  
 背陰妙智春，如在住水佳處。  
 長憶平生事，如夢一箇人。  
 丙午清明節 鍾一祥上人詩 通度寺 彩雲張自邦

丙午清明節

鍾一祿上人詩通度寺

张自邦



通度寺  
통도사

客尋幽庭入無風  
日照桑榆聽暮鍾  
樓外清溪溪外竹  
岩邊石榻榻邊松  
背陰殘雪春猶在  
住水僵砧夜尚春  
長憶幾年今始至  
平生思戀一時空

바람도 들지 않는 그윽한 뜰에 나그네가 찾아오자  
 해는 뿔나무에 걸리고 저녁 종소리만 들리네.  
 다락 밖에는 맑은 시내, 시내 건너엔 대숲이 있고  
 바위가에는 돌탑, 탑가에 소나무가 있네.  
 봄이 왔어도 응달에는 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시냇가에 누운 물방아는 밤 깊도록 바야를 켜네.  
 몇 해 동안 버려다 이제야 와보니  
 평생 그리움이 일시에 공(空) 되었네.

두루산 반야봉 동쪽에  
절이 있는데  
달빛이 금강산 앞처럼  
그림자 엉클어나  
항울까지 아지랑이가  
탐끝에 날고  
종소리가 꿈 깨며  
두바람에 불려오네  
청학동에는 푸른 학이  
오지 않는데  
백운봉은 흰 구름이  
늘에위사고 있네  
상계가 멀리 외는  
돌문 사이로  
희미한 가을빛이  
한눈에 띄네

경관대사시  
창문로  
창문로  
창문로

七佛庵  
칠불암



채운 장정희 彩雲 張貞姬

개이전(2024, 한새갤러리)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부산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영남지회장 역임  
한국미협·부산미협·국제서예가협회 회원

부산시 해운대구 세실로 43, 505호 채운서예원  
Mobile : 010-2756-7712



烟雨空濛渺一江樓中宿客夜  
 我意明朝之馬衝泥去回首  
 滄波白鳥雙

丙午初夏 題驪興樓  
 洪興樓 義霖謹書

圃隱先生 詩 · 題驪興樓  
 포은선생 시 · 제여흥루

煙雨空濛渺一江 연우공몽묘일강  
 樓中宿客夜開窓 누중숙객야개창  
 明朝上馬衝泥去 명조상마충니거  
 回首滄波白鳥雙 회수창파백조쌍

가랑비가 부슬부슬 온 강을 아득히 채우니  
 누각에 머물던 나그네, 한밤중에 창문을 열어보네  
 내일 아침 말을 타고 진흙길을 헤쳐 떠날 적에  
 머리 돌려 푸른 물결 보니 흰 갈매기 한 쌍이 노니네

— 題驪興樓 其二 —



論語句 · 懷德  
 논어구 · 회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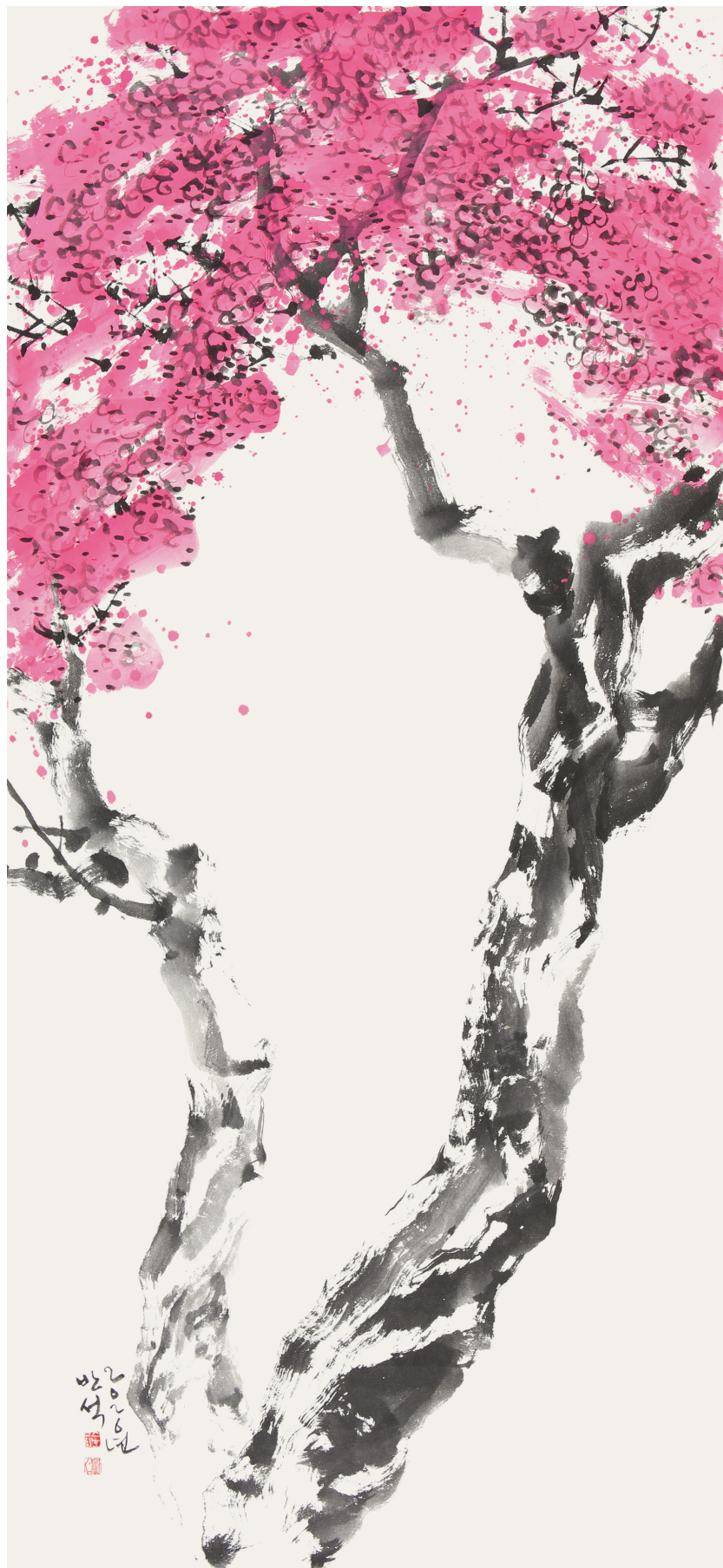
도덕의 세계를 생각한다.  
 — 論語 里仁篇句 —



여속 정의림 如栗 鄭義霖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운영위원장 역임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56, 112동 1904호(롯데낙천대)  
 Mobile : 010-2557-7351





금정산도



반석 김준오 盤石 金俊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5회, 단체전 300여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시 북구 학사로 17번길 19, 203호  
(중도빌딩) 반석김준오화실  
Mobile : 010-7301-5442



통도사 자장매



1. 1월 10일  
 2. 1월 11일  
 3. 1월 12일  
 4. 1월 13일  
 5. 1월 14일  
 6. 1월 15일  
 7. 1월 16일  
 8. 1월 17일  
 9. 1월 18일  
 10. 1월 19일  
 11. 1월 20일  
 12. 1월 21일  
 13. 1월 22일  
 14. 1월 23일  
 15. 1월 24일  
 16. 1월 25일  
 17. 1월 26일  
 18. 1월 27일  
 19. 1월 28일  
 20. 1월 29일  
 21. 1월 30일  
 22. 2월 1일  
 23. 2월 2일  
 24. 2월 3일  
 25. 2월 4일  
 26. 2월 5일  
 27. 2월 6일  
 28. 2월 7일  
 29. 2월 8일  
 30. 2월 9일  
 31. 2월 10일  
 32. 2월 11일  
 33. 2월 12일  
 34. 2월 13일  
 35. 2월 14일  
 36. 2월 15일  
 37. 2월 16일  
 38. 2월 17일  
 39. 2월 18일  
 40. 2월 19일  
 41. 2월 20일  
 42. 2월 21일  
 43. 2월 22일  
 44. 2월 23일  
 45. 2월 24일  
 46. 2월 25일  
 47. 2월 26일  
 48. 2월 27일  
 49. 2월 28일  
 50. 2월 29일  
 51. 3월 1일  
 52. 3월 2일  
 53. 3월 3일  
 54. 3월 4일  
 55. 3월 5일  
 56. 3월 6일  
 57. 3월 7일  
 58. 3월 8일  
 59. 3월 9일  
 60. 3월 10일  
 61. 3월 11일  
 62. 3월 12일  
 63. 3월 13일  
 64. 3월 14일  
 65. 3월 15일  
 66. 3월 16일  
 67. 3월 17일  
 68. 3월 18일  
 69. 3월 19일  
 70. 3월 20일  
 71. 3월 21일  
 72. 3월 22일  
 73. 3월 23일  
 74. 3월 24일  
 75. 3월 25일  
 76. 3월 26일  
 77. 3월 27일  
 78. 3월 28일  
 79. 3월 29일  
 80. 3월 30일  
 81. 3월 31일  
 82. 4월 1일  
 83. 4월 2일  
 84. 4월 3일  
 85. 4월 4일  
 86. 4월 5일  
 87. 4월 6일  
 88. 4월 7일  
 89. 4월 8일  
 90. 4월 9일  
 91. 4월 10일  
 92. 4월 11일  
 93. 4월 12일  
 94. 4월 13일  
 95. 4월 14일  
 96. 4월 15일  
 97. 4월 16일  
 98. 4월 17일  
 99. 4월 18일  
 100. 4월 19일  
 101. 4월 20일  
 102. 4월 21일  
 103. 4월 22일  
 104. 4월 23일  
 105. 4월 24일  
 106. 4월 25일  
 107. 4월 26일  
 108. 4월 27일  
 109. 4월 28일  
 110. 4월 29일  
 111. 4월 30일  
 112. 5월 1일  
 113. 5월 2일  
 114. 5월 3일  
 115. 5월 4일  
 116. 5월 5일  
 117. 5월 6일  
 118. 5월 7일  
 119. 5월 8일  
 120. 5월 9일  
 121. 5월 10일  
 122. 5월 11일  
 123. 5월 12일  
 124. 5월 13일  
 125. 5월 14일  
 126. 5월 15일  
 127. 5월 16일  
 128. 5월 17일  
 129. 5월 18일  
 130. 5월 19일  
 131. 5월 20일  
 132. 5월 21일  
 133. 5월 22일  
 134. 5월 23일  
 135. 5월 24일  
 136. 5월 25일  
 137. 5월 26일  
 138. 5월 27일  
 139. 5월 28일  
 140. 5월 29일  
 141. 5월 30일  
 142. 5월 31일  
 143. 6월 1일  
 144. 6월 2일  
 145. 6월 3일  
 146. 6월 4일  
 147. 6월 5일  
 148. 6월 6일  
 149. 6월 7일  
 150. 6월 8일  
 151. 6월 9일  
 152. 6월 10일  
 153. 6월 11일  
 154. 6월 12일  
 155. 6월 13일  
 156. 6월 14일  
 157. 6월 15일  
 158. 6월 16일  
 159. 6월 17일  
 160. 6월 18일  
 161. 6월 19일  
 162. 6월 20일  
 163. 6월 21일  
 164. 6월 22일  
 165. 6월 23일  
 166. 6월 24일  
 167. 6월 25일  
 168. 6월 26일  
 169. 6월 27일  
 170. 6월 28일  
 171. 6월 29일  
 172. 6월 30일  
 173. 7월 1일  
 174. 7월 2일  
 175. 7월 3일  
 176. 7월 4일  
 177. 7월 5일  
 178. 7월 6일  
 179. 7월 7일  
 180. 7월 8일  
 181. 7월 9일  
 182. 7월 10일  
 183. 7월 11일  
 184. 7월 12일  
 185. 7월 13일  
 186. 7월 14일  
 187. 7월 15일  
 188. 7월 16일  
 189. 7월 17일  
 190. 7월 18일  
 191. 7월 19일  
 192. 7월 20일  
 193. 7월 21일  
 194. 7월 22일  
 195. 7월 23일  
 196. 7월 24일  
 197. 7월 25일  
 198. 7월 26일  
 199. 7월 27일  
 200. 7월 28일  
 201. 7월 29일  
 202. 7월 30일  
 203. 7월 31일  
 204. 8월 1일  
 205. 8월 2일  
 206. 8월 3일  
 207. 8월 4일  
 208. 8월 5일  
 209. 8월 6일  
 210. 8월 7일  
 211. 8월 8일  
 212. 8월 9일  
 213. 8월 10일  
 214. 8월 11일  
 215. 8월 12일  
 216. 8월 13일  
 217. 8월 14일  
 218. 8월 15일  
 219. 8월 16일  
 220. 8월 17일  
 221. 8월 18일  
 222. 8월 19일  
 223. 8월 20일  
 224. 8월 21일  
 225. 8월 22일  
 226. 8월 23일  
 227. 8월 24일  
 228. 8월 25일  
 229. 8월 26일  
 230. 8월 27일  
 231. 8월 28일  
 232. 8월 29일  
 233. 8월 30일  
 234. 8월 31일  
 235. 9월 1일  
 236. 9월 2일  
 237. 9월 3일  
 238. 9월 4일  
 239. 9월 5일  
 240. 9월 6일  
 241. 9월 7일  
 242. 9월 8일  
 243. 9월 9일  
 244. 9월 10일  
 245. 9월 11일  
 246. 9월 12일  
 247. 9월 13일  
 248. 9월 14일  
 249. 9월 15일  
 250. 9월 16일  
 251. 9월 17일  
 252. 9월 18일  
 253. 9월 19일  
 254. 9월 20일  
 255. 9월 21일  
 256. 9월 22일  
 257. 9월 23일  
 258. 9월 24일  
 259. 9월 25일  
 260. 9월 26일  
 261. 9월 27일  
 262. 9월 28일  
 263. 9월 29일  
 264. 9월 30일  
 265. 10월 1일  
 266. 10월 2일  
 267. 10월 3일

밀양 아리랑



西山大師 詩・四時青  
서산대사 시·사시청

月圓不逾望 日中爲之傾  
庭前栢樹子 獨也四時青

달은 둥글어도 보름은 넘지 못하고 해는 정오가 되면 기울기 시작한다.  
뜰앞의 잣나무는 홀로 사시사철 푸르네.



지원 박무숙 芝苑 朴戊淑

개인전 4회 및 단체전, 초대전 450여 회 출품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부산미술대전·전국서도민전·청남회초대회 초대작가, 심사 및 운영위원 역임  
부산여성서화작가회 회장 역임 / (현)부산미술협회 부이사장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31번길, 현호타워 505호 지원서예원  
Mobile : 010-2583-0586



수천년전 바다를 건너온 고래들이 바위벽에  
 제 몸을 새겨 놓고 잠든 곳 물결 소리는 아직도  
 그날의 노래를 부르고 시간은 대곡천 앞은  
 물결기에 씻겨 흐른다  
 정일근님시 보림

정일근님 시 · 반구대 암각화 앞에서

新羅昔日處容翁見  
 說來從碧海中貝齒  
 頰唇歌夜月鷺肩紫  
 袖舞春風

錦李齊賢先生詩處容  
 保林梁普星

李齊賢 先生 詩 · 處容  
 이제현 선생 시 · 처용

新羅昔日處容翁 신라석일처용옹  
 見說來從碧海中 견설래종벽해중  
 貝齒頰唇歌夜月 패치정순가야월  
 鷺肩紫袖舞春風 연견자수무춘풍

신라의 어느 옛날, 처용 노인이 나타나셨는데  
 전해지는 말로는 저 푸른 바다 속에서 오셨다 하네.  
 하얀 이와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 부르니  
 당당한 어깨 자주색 소매로 봄바람 속에 춤을 추도다.



보림 양보성 保林 梁普星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전국서도민전 및 울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울산미술협회 서예2분과 위원장 역임 / 울산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현)한국미협·울산미협·국제서법연합회 영남지회·울산서예가협회 회원  
 울산시 남구 두왕로126번길 16(선암동), 3층  
 Mobile : 010-5538-9399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 까  
흔들리는 너의 머리나 그 부산역  
변한 너의 달빛이 그 야나 너도 이제  
술라 만 달빛이 그 연오래된 바다만  
시각이 먼 휘버린 듯이 대로 손은 꼭  
그런이 보자 아무 생각 없이 햇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맞춰 본다  
부산에 가면 지운 김정희

부산에 가면

夫秋之爲狀也其色慘淡  
烟霏雲歛其容清明  
天高日晶其氣凜冽  
砭人肌骨其意蕭條  
山川寂寥故其爲聲也  
淒淒切切呼號憤發

秋聲賦  
추성부

蓋夫秋之爲狀也, 其色慘淡,  
煙霏雲歛, 其容清明.  
天高日晶, 其氣凜冽,  
砭人肌骨, 其意蕭條, 山川寂寥.  
故其爲聲也,  
淒淒切切, 呼號憤發.  
대저 가을의 모습이란, 그 색은 암담하여  
안개는 날아가고 구름은 걷히고, 그 모양은 청명하여  
하늘은 드높고 태양은 빛나며, 그 기운은 소름 끼치게 차가워  
피부와 뼈를 찌르며, 그 뜻은 쓸쓸하여 산천이 고요하다.  
그러기에, 그 소리가 처량하고  
애절하며 울부짖는 듯 떨치고 일어나는 듯한 것이다.



지운 김정희 芝云 金貞姬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석사 졸업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현)이사  
부산미술대전·전국회화대회(국서련)·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개인전 2회(2015, 2023 부산시청갤러리) / 지운 김정희서예원 운영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230, 403호 (화명동, 금웅레포츠)  
Mobile : 010-4576-8839



나하나꽃피어봄봄봄  
봄봄봄봄봄봄봄봄봄  
네가꽃피고나도꽃피면결국봄봄봄이  
되는것이니꽃피는나하나봄봄봄이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이꽃피는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조용하느니나하나꽃피어봄봄봄봄봄

조동화 시 · 나 하나 꽃 피어

바구대

一  
 行산급이치며물을살을듯쓸이네니  
 지름은구름가벼운바람이신선굴속에가  
 득하니종을시니유현사모도머기있으니원만함  
 신선이사오시지도못함겉네  
 전상말선생시를술에서형숙적다  
 1981. 10. 10.



슬예 서영숙 以敬 徐英淑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서예학, 동양미술 전공)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울산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 심사위원 역임  
신사임당·이충무공세대전·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현)국제서법 한국본부 영남지역 부이사장, 한국기협·울산미협 회원

울산시 남구 문수로 409번길 20,  
101동 1502호(문수로 IPARK 1차)  
Mobile : 010-3644-3331

권상일 시·반구대



金碧樓明壓水天昔年誰構此峯前  
一竿漁父雨聲外十里行人山影邊  
入檻雲生巫峽曉逐波花出武陵煙  
沙鷗但聽陽關曲那識愁心送別筵

嶺南樓  
영남루

金碧樓明壓水天  
昔年誰構此峯前  
一竿漁父雨聲外  
十里行人山影邊  
入檻雲生巫峽曉  
逐波花出武陵煙  
沙鷗但聽陽關曲  
那識愁心送別筵

고운 색채의 다락이 밝아 물 속의 하늘을 눌렀구나  
옛날에 그 누가가 이 봉우리 앞에 지었던가  
한 낚싯대의 어부는 빗소리 저 밖이요  
십리의 나그네는 산 그림자 저 가네  
난간에 든 구름은 무협의 새벽에 생기고  
물결을 쫓는 꽃은 무릉의 연기에서 나온다  
모래반 갈매기는 양관곡이야 알겠지만  
제가 어찌 시름 깊은 송별의 자리 알아 주리

해운대에 올라

구름속에 치솟는듯 아화이대는 높고  
궁이 보는 동녘바다 리없이 맑고 맑다  
바라와 하늘빛은 가없이 푸르는데 흰  
흰나는갈매기 등너머라는 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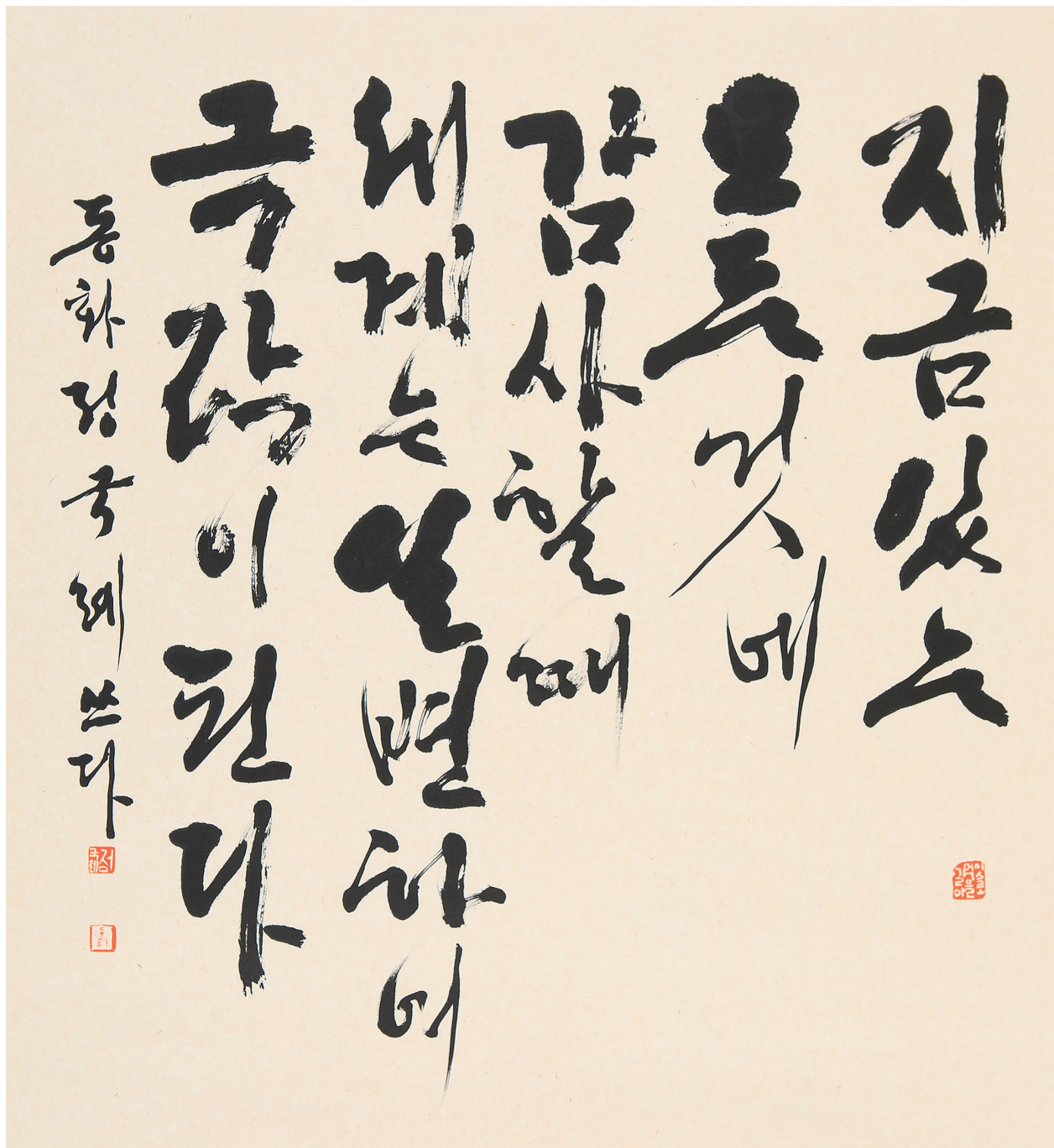
이안늘시해운대에올라를쓰라소정



소정 왕선미 素汀 王善美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부산미술대전·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심사  
전국서예대전(월간서예) 초대작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41, 206동 604호(대우마리나)  
Mobile : 010-6529-1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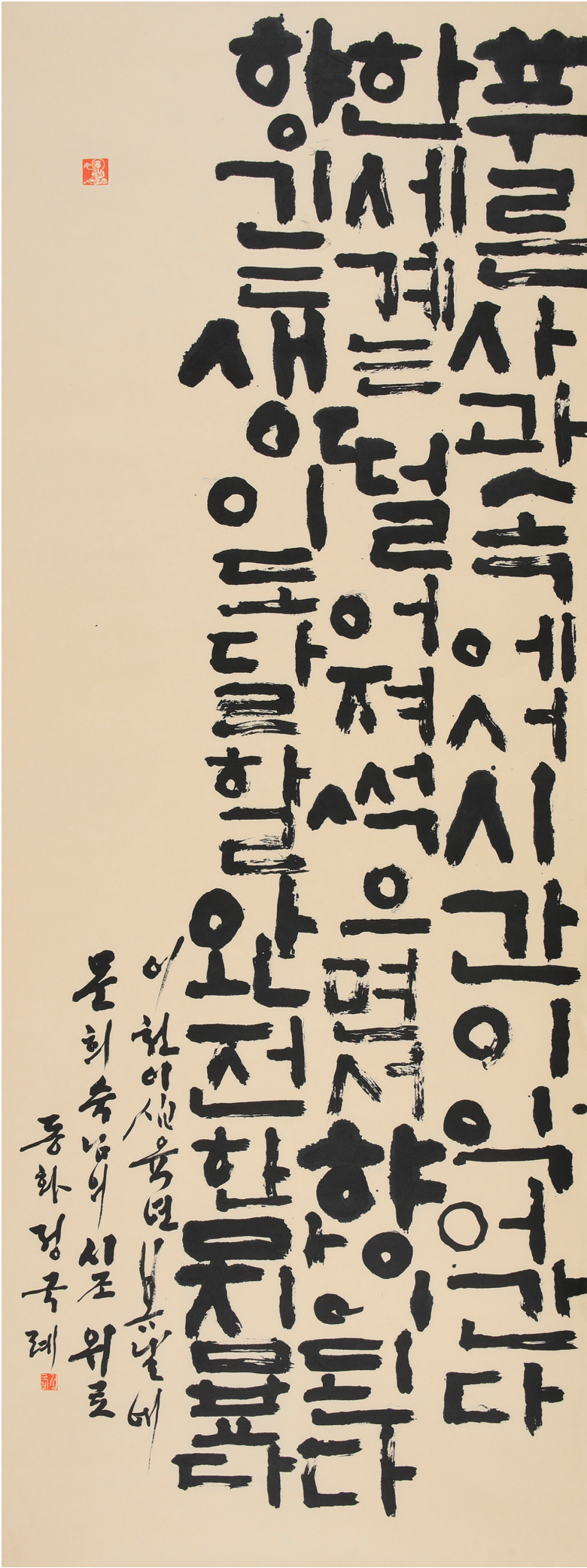
감사



동화 정국례 東和 鄭局禮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 전국회화대회(국서련) 대상, 초대작가, 심사 역임  
개인전(부산, 서울) / 한글서예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특별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작품 등재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1번길 27, 대광서예  
Mobile : 010-7587-0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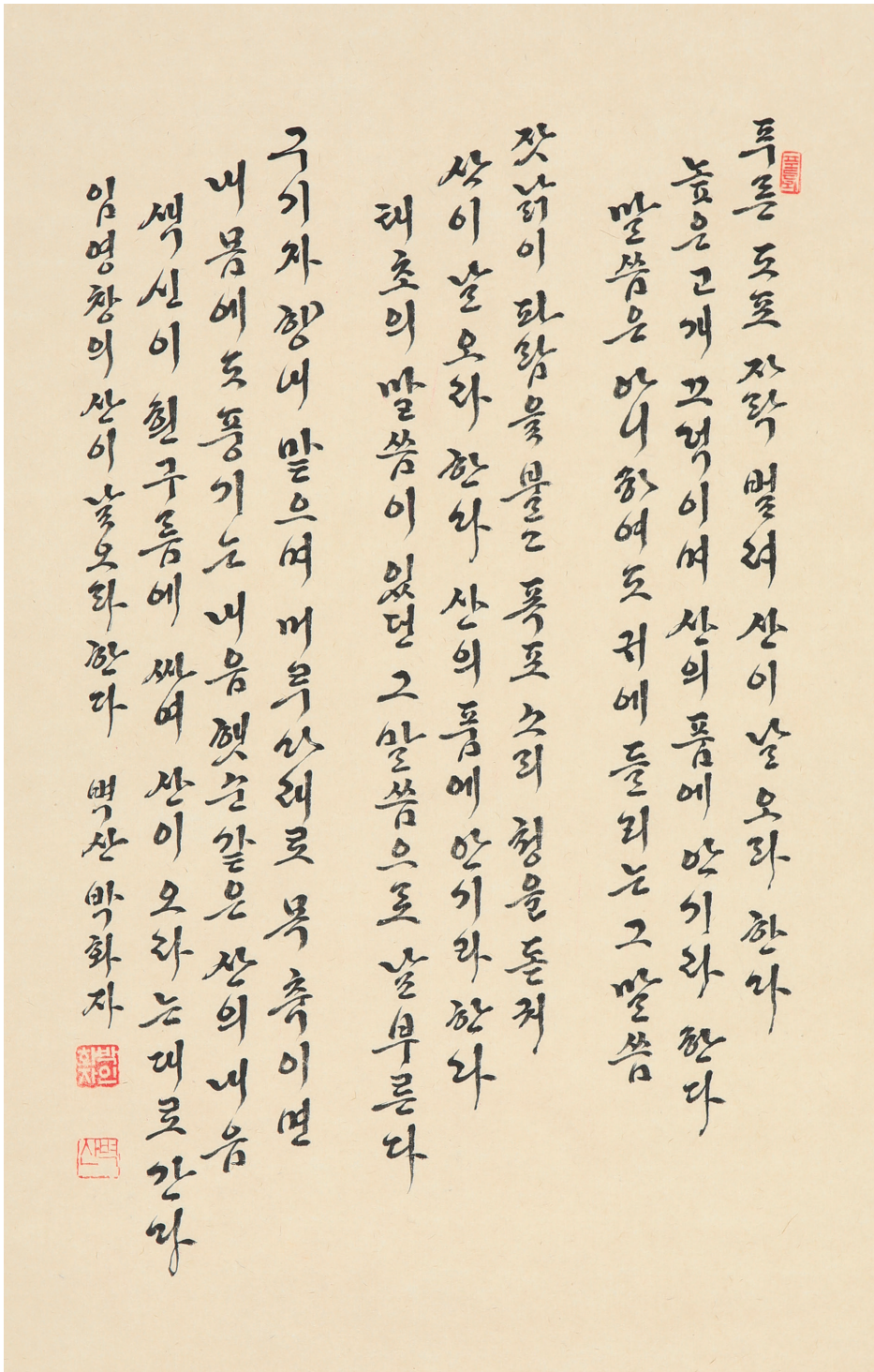
문희숙님 시조 · 위로



# 나의 길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배길이 있습니다. 농경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들은 모래위에 발자취를 더합니다. 들에서 나  
뭇케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아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 갑니다. 의있는 사람들은 의의 길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돌을 밟습니다. 봄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 서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가 없습니다. 그거  
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주님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움과 답답합니다. 아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  
니까 아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은 님이 내어주셨다면 주님의 길입니다. 왜  
내셨을까요 이 천이십오년 여름무심살 남창가에서 만해한양은 선사의 나의 길을 쓰다 벽산 박화자

한용운님의 나의 길



임영창님의 산이 날 오라 한다



벽산 박화자 碧山 朴花子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울산미술대전·전남미술대전·경남미술대전 심사 역임 / 전국회화대전(국서련) 초대작가  
(현)울산미협 서예1분과장, 한국미협 서예1분과 이사 역임 / 벽산서실 운영  
울산시 남구 동산로 89번길 4, 801호(공간베스트힐)  
Mobile : 010-3550-9280



滿庭月色無煙燭入座  
山光不速賓更有松絃  
彈譜外只堪珍重未傳人

崔冲先生詩絕句 丙午之春 裁林

崔冲 詩 絕句  
최충 시 절구

滿庭月色無煙燭  
入座山光不速賓  
更有松絃彈譜外  
只堪珍重未傳人

뜰에 비친 달빛은 우리집 촛불이고  
방에 비친 산빛은 무간한 손님이고  
솔밭의 바람소리는 태고의 음악이니  
이 속의 이 재미를 남에게 헌사하오!

遊山歌 중에서  
유산가 중에서

花爛春城

老爛春城古고랑和方暢이라  
씨조斗以남이非山川景概를구경가시  
遊山歌中에서 丙午之春 裁林

재림 성철정 裁林 成哲井

대한민국 국전 입선  
부산미협 초대작가  
청남회호대회 심사 역임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42, 101동 1403호(반도보라)  
Mobile : 010-3224-2202





綠樹陰濃夏日長  
樓臺倒影入池塘  
水精簾動微風起  
一架薔薇滿院香

高聶·山亭夏日  
고병·산정하일

綠樹陰濃夏日長  
樓臺倒影入池塘  
水精簾動微風起  
一架薔薇滿院香  
초록색 짙은 나무 그림자 던지고  
여름날 길기도 한데  
누각 그림자를 거꾸로하여  
연못에 비치고 있다.

高聶太祖訓要十條  
鑑古戒今

有國有家 儆戒無虞 博覽經史 鑒古  
戒今 周公大聖 無逸一篇 進戒成王 宜當圖  
揭出入觀省 丙午之夏 外斗嚴

鑑古戒今  
감고계금

옛일을 거울삼아 지금을 경계한다.

有國有家 儆戒無虞  
博覽經史 鑑古戒今  
周公大聖 無逸一篇 進戒成王  
宜當圖揭 出入觀省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근심이 없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사(經史)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삼아 지금을 경계해야 한다.  
주공(周公)은 큰 성인이지만 「무逸(無逸)」 1편을  
성왕(成王)에게 바쳐 경계로 삼았으니,  
마땅히 이를 그림으로 그려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보고 반성하여라.



두암 신종주 斗嚴 慎宗柱

부산미술대전 대상, 초대작가, 심사 역임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청남회호대회 초대작가, 심사 역임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50, 401동 1507호(백양푸른숲)  
Mobile : 010-8516-7474



광신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광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해가 저를 어산그림자가 총집음을  
 걸을 때에 나는 기억없는 기배를 가지고 마을을 밖에서 나가 있고 있습니다. 나 그를 보고 오는  
 아이들의 의뢰를 일찍 리는 제 느리에 부마칩니다. 면나우로 돌아가는 새들  
 은 저녁연기에 헤엄칩니다. 나 그들을 바라보고 의욕을 그치고 장장히 섰  
 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동경하는 표상입니다. 다시 나를 따라 급이 친프랫  
 길이어들의 표정에 안저저장들을 때에 나는 고오하고 아득한 하늘에 기한  
 수의 사라진 자취를 남기고 게으른 것을 은으로 돌아옵니다. 나 광신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광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어들의 입이 황홀의 연염은 빛을 삼킬 때에 나는  
 시를 없애고 밖에 서서 광신을 기다립니다. 한 용은 나의 고배를 외쳐 천국 천영을

## 한용운님의 고대 중에서



덕곡 전영숙 德谷 田英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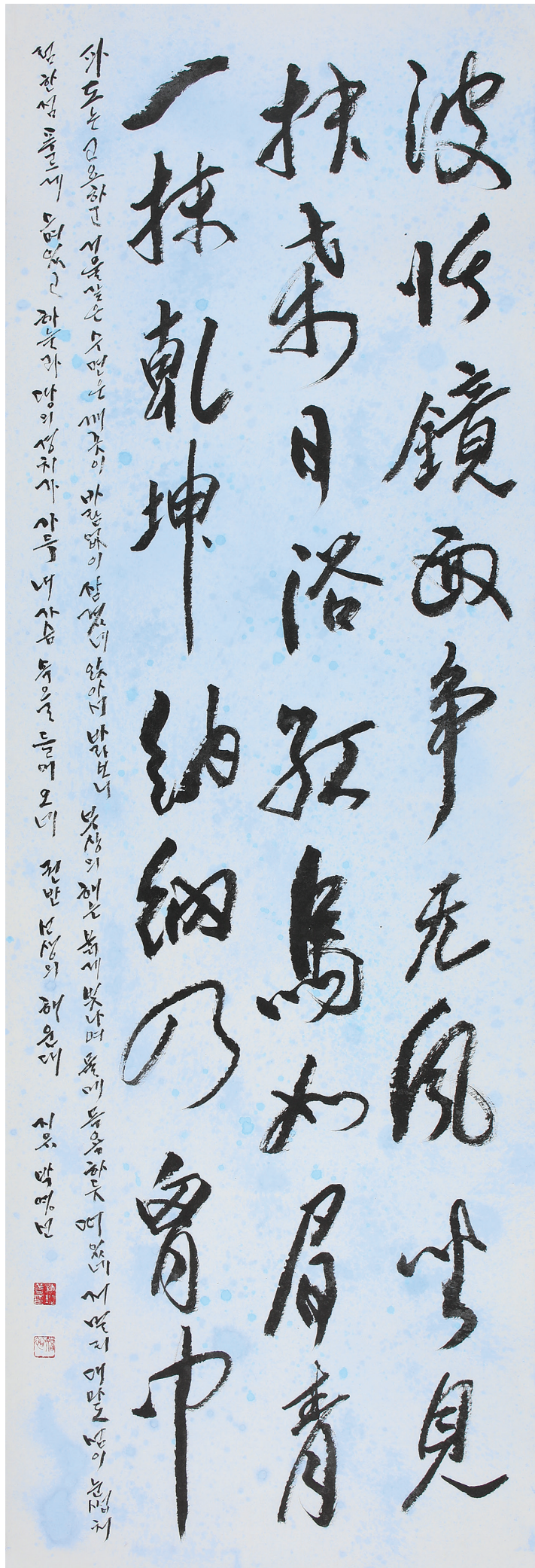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 초대작가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  
경상남도미술대전 추천작가

경남 양산시 평산북로 54,  
102동 401호(양산코아루)  
Mobile : 010-7227-3458

시공의 장막 뒤로 마음은 열어가며 사마의 능가 병길나들듯 거듭하고  
시작과 이어짐의 끝마음추이를 들켜나 두근의 능선 따라 성찰의 계승소리  
원시의 옷을 입은 깨달음에 그때 끌려쳐 붙은 누을 주에서 원호설법 들는다  
이것이 십육년 봄 하느님 시화영변에서 쓴다 덕곡 천영주

하주용님 시 · 화엄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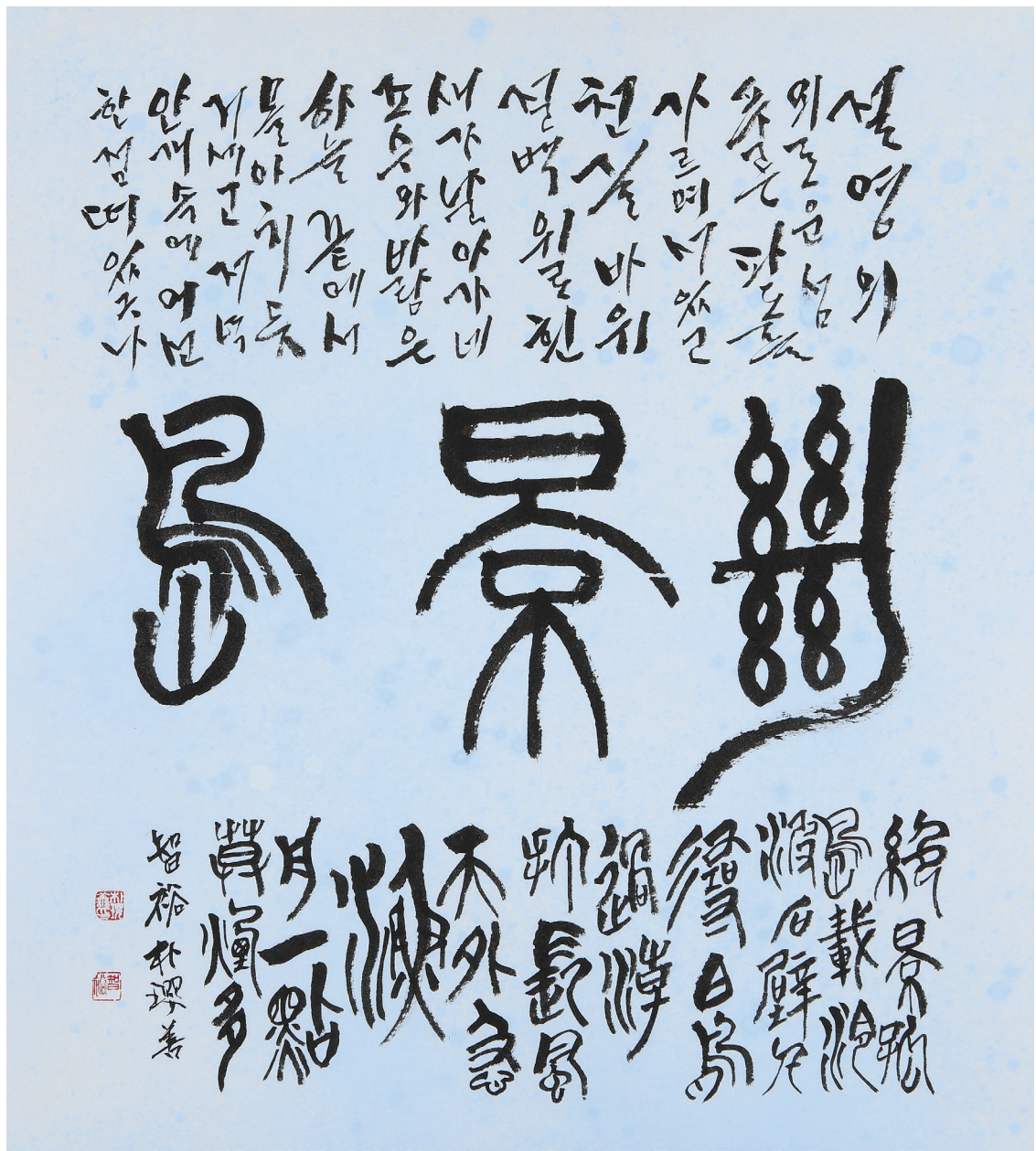




海雲臺  
해운대

波恬鏡面淨無風  
坐見扶桑日浴紅  
馬島如眉青一抹  
乾坤納納入胸中

파도는 고요하고 거울 같은 수면은 깨끗이 바람 없이 잠겼네.  
앉아서 바라보니 부상의 해는 붉게 빛나며 물에 목욕하듯 떠 있네.  
저 멀리 마(馬)섬(대마도)이 눈썹처럼 한 점 푸르게 스며 있고  
하늘과 땅(乾坤)의 경치가 가득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네.



絶影島  
절영도(영도)

絶影孤島截滄波  
石壁千尋白鳥過  
潮打長風天外急  
漁舟一點暮煙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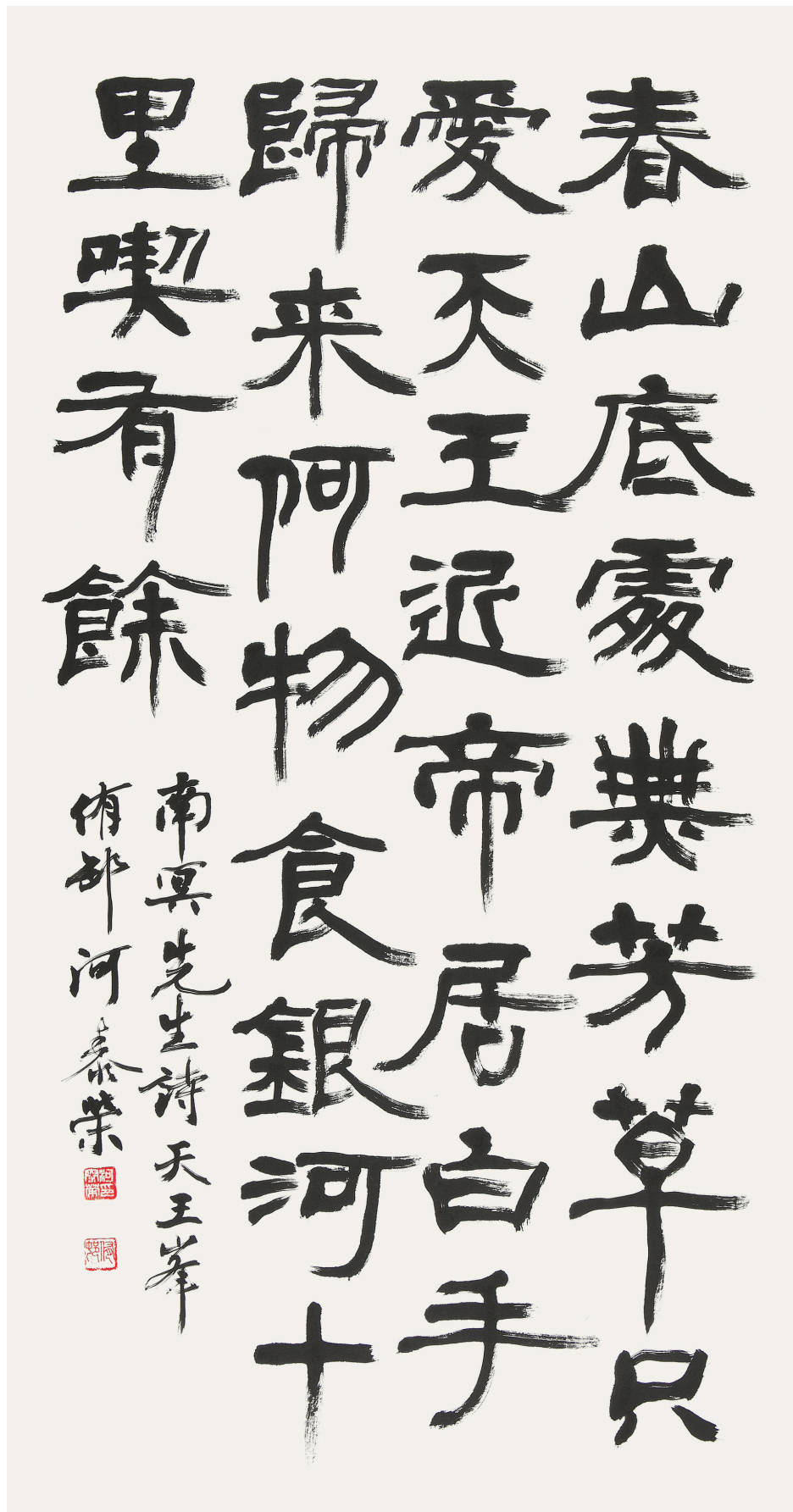
절영의 외로운 섬, 푸른 파도를 가르며 서 있고  
천 길 바위 절벽 위로 흰 새가 날아가네.  
조수와 바람은 하늘 끝에서 몰아치듯 거세고  
저녁 안개 속에 어선 한 점 떠 있구나.



지유 박영선 智裕 朴瓔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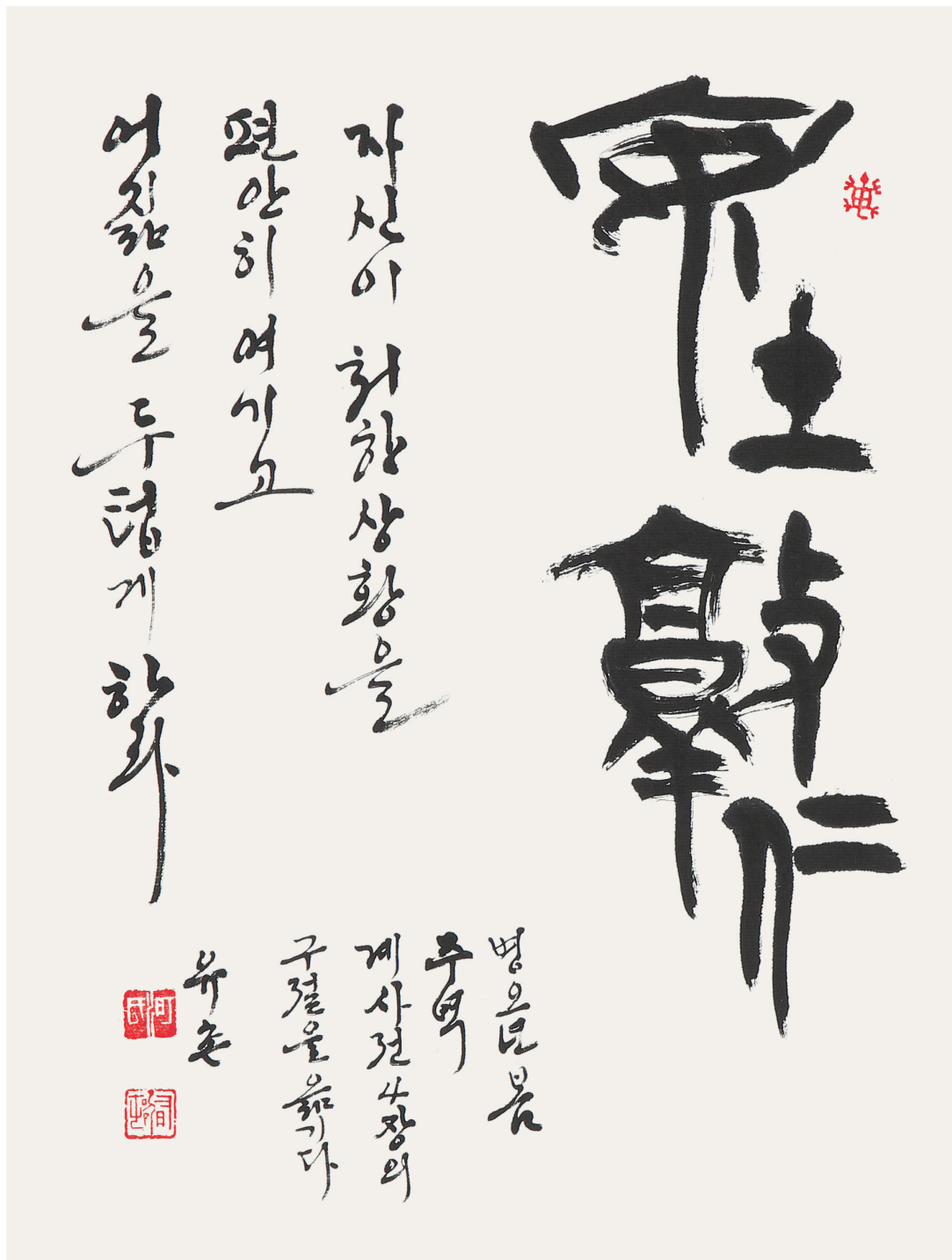
개인전 1회(2018, 業風) / 개인전 2회(2020, 劃으로 부터)  
부산서예전람회 초대작가, 심사 / 한국현대미술인협회 초대작가  
대한민국서화디자인협회 감사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35, 107동 1302호(좌동 코오롱)  
Mobile : 010-6565-3997





曹植·德山卜居  
조식·덕산복거

春山底處無芳草 춘산저처무방초  
只愛天王近帝居 지애헌왕근제거  
白手歸來何物食 백수귀래하물식  
銀河十里喫有餘 은하십리각유여  
봄 산은 어디인들 꽃다운 풀 없으랴  
지금 천왕봉이 하늘 가까이 있어 사랑하네.  
빈손으로 돌아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은하수는 십 리 마시고도 남음이 있다네.



安土敦仁  
안토돈인



유촌 하태영 侑邨 河泰榮

경남도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  
김해미술대전 운영위원, 심사 역임  
한국미협·김해미협·국서련 회원  
김해시 분성로14, 110동 102호 (일동한신)  
Mobile : 010-3843-6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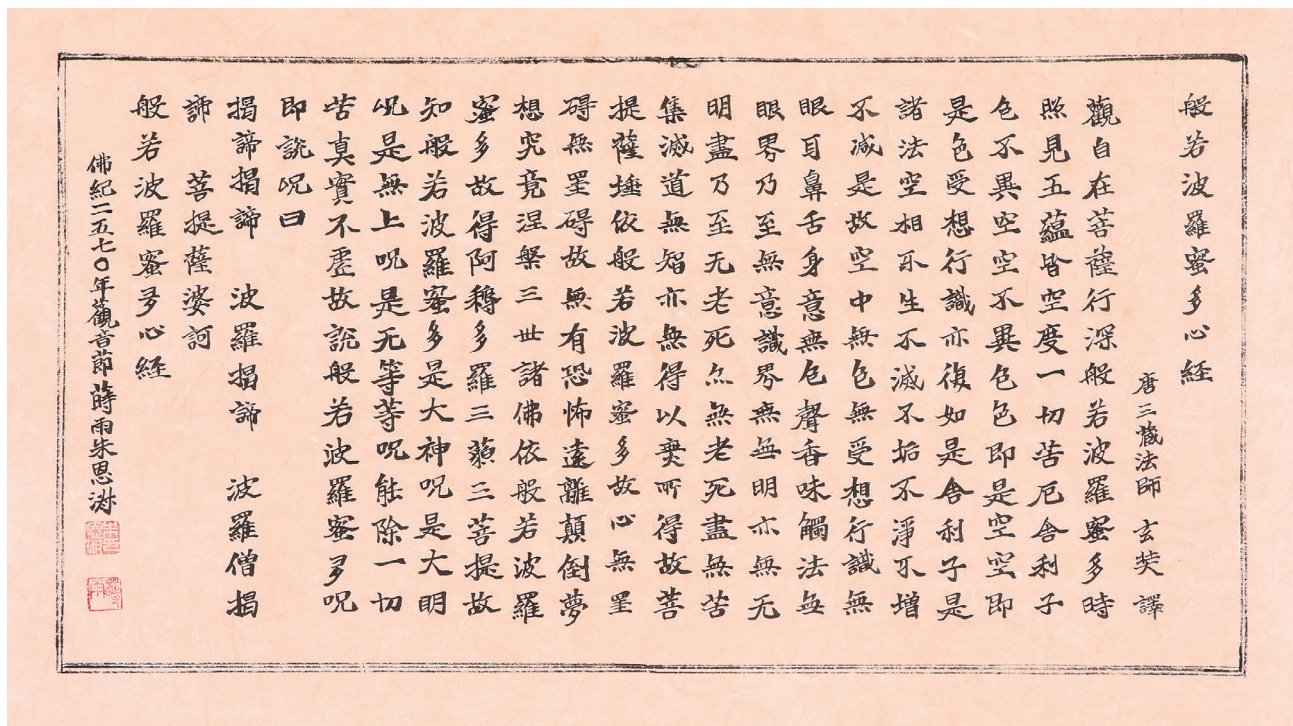
竹分翠影侵書榻  
菊送清香滿客衣  
葉亦能生氣  
勢一逢風雨自飛  
權遇詩秋日絕句一首  
丙午之春節  
蔣雨軒人朱恩淑敬書

秋日絕句  
추일절구

竹分翠影侵書榻  
菊送清香滿客衣

대나무 그림자는 책상을 침노하고  
국화 향기는 나그네 옷에 가득하다.

— 權遇先生 詩 —



般若心經  
반야심경



시우 주은숙 蔣雨 朱恩淑

동국대학교 인문대 한문학 전공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다수 / 대한민국미술협회·울산미술협회 회원  
울산미술대전(미협)·청남회호대회·전국서도만·대한민국서화대전 초대작가  
시우서예연구소·국가공인한자자격지역 책임자 / 한문서예·한문(논어강사)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향교로 164, 101동 704호(계룡리슈빌)  
Mobile : 010-8233-9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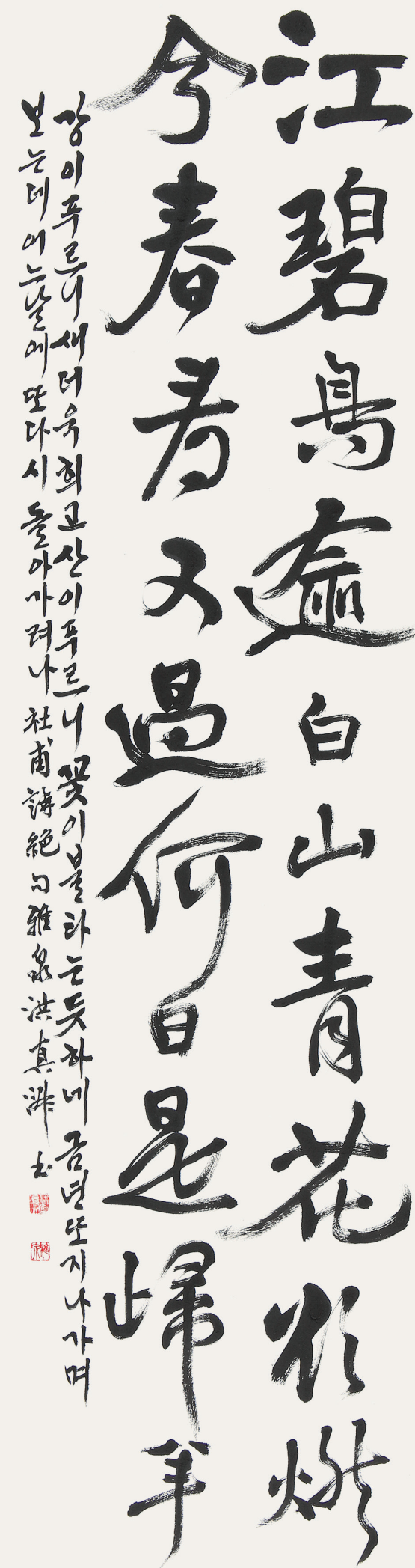


능소화



아전 홍진숙 雅泉 洪眞淑

전국서도민전 대상, 초대작가 및 심사 역임 / 부산미술대전(미협) 초대작가 및 심사 역임  
월간서예대전 초대작가 / 2012년 개인전(부산시민회관)  
국서련 회원, 가톨릭서예인회 회원  
부산시 수영구 남천바다로 21번길 51, 902호(태평양@)  
Mobile : 010-9343-6607



杜甫 詩 絕句  
두보 시 절구

江碧鳥逾白  
山青花欲燃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강이 푸르니 새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 불타는 듯 하네.  
금년 봄 또 지나가며 보는데  
어느 날에 또 다시 돌아가려나.



嶠南饒水石 搜勝擅名佳  
石出潭因舊 霞濃逕不埋  
曾誰三洞主 今我上清懷  
吟就翻歸去 幽香滴斷崖

搜勝臺次退溪先生韻  
수승대 퇴계 선생 시를 차운하다

嶠南饒水石 교남요수석  
搜勝擅名佳 수승천명가  
石出潭因舊 석출담인구  
霞濃逕不埋 하농경불매  
曾誰三洞主 증수삼동주  
今我上清懷 금아상청회  
吟就翻歸去 음취번귀거  
幽香滴斷崖 유향적단애

영남엔 수석이 많고 많지만  
그중에 수승대가 아름답다네  
돌은 솟고 못은 고여 옛날과 같으니  
노을이 질어져도 길은 묻히지 않네  
일찍이 삼동 주인 누구였던가  
마치 상청에 오른 듯한데  
시 짓고 발길 돌려 돌아가려니  
그윽한 향기가 벼랑에서 방울지누나

—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 —

煎茗

손님을 위로하려  
새 차를 끓이면서  
향을 더 넣고  
젓불을 뒤적이니  
梅月堂先生詩  
長谷慎裁範

梅月堂 先生 詩句 · 見巖寺  
매월당 선생 시구 · 현암사

慰客新煎茗 위객신전명    객을 위로하려 새 차를 끓이면서  
添香自撥灰 첨향자발회    향을 더 넣고 젓불을 뒤적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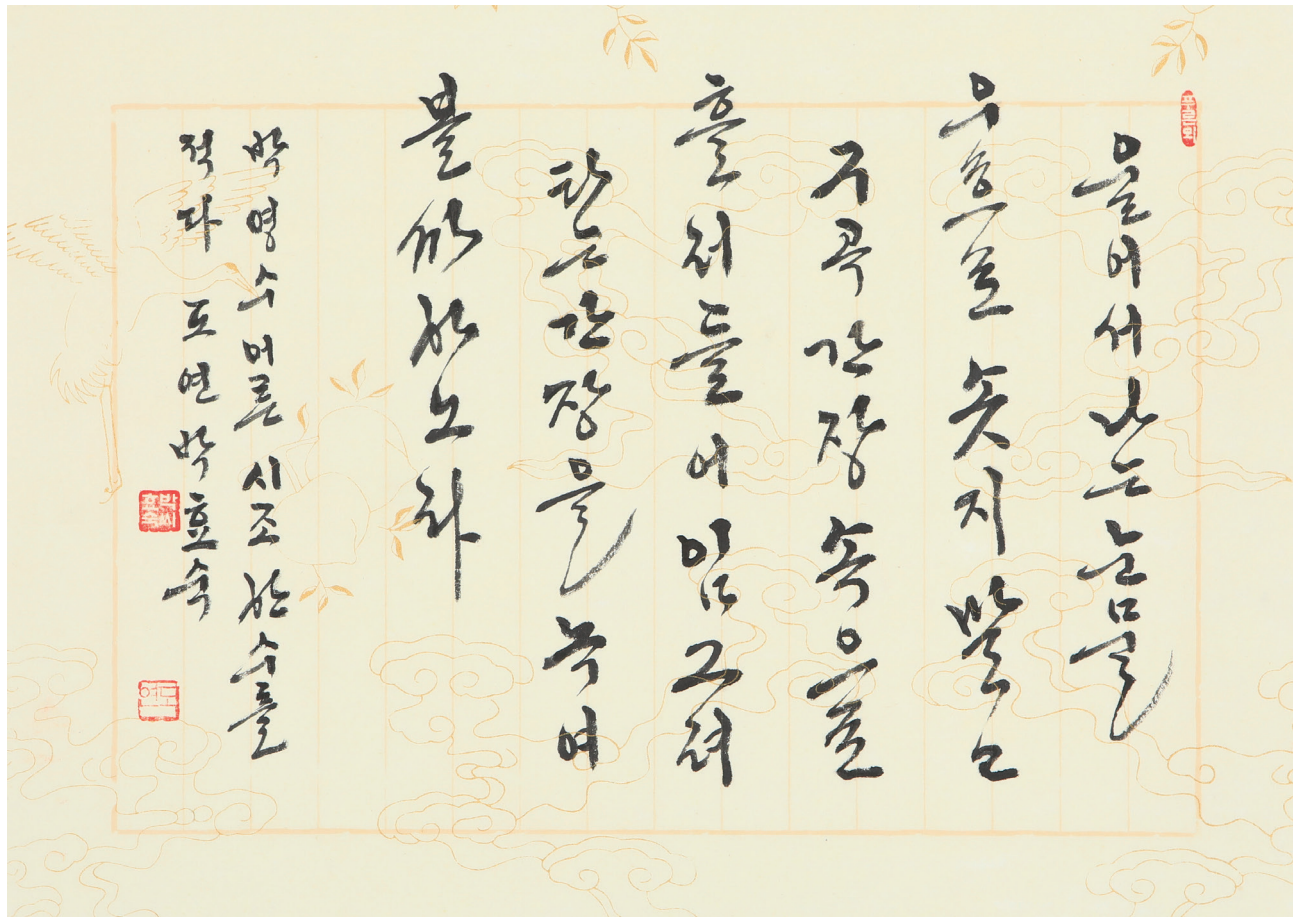


장곡 신재범 長谷 慎裁範

개인전 2회(서울, 거창)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예학과 졸업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유당미술상 수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33, 107동 302호  
Mobile : 010-3526-7982





박영수 시조



도연 박효숙 陶蓮 朴曉淑

울산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 경북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신라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전통서화대전 초대작가  
 울산미술협회 회원, 국제서법 영남지회 회원  
 경주시 효현동 외외1길 68  
 Mobile : 010-4580-7866



묵죽





홍매



소원 유미선 小苑 柳美善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시 연제구 명륜로2번길 7, 102동 2403호  
Mobile : 010-5540-9897



묵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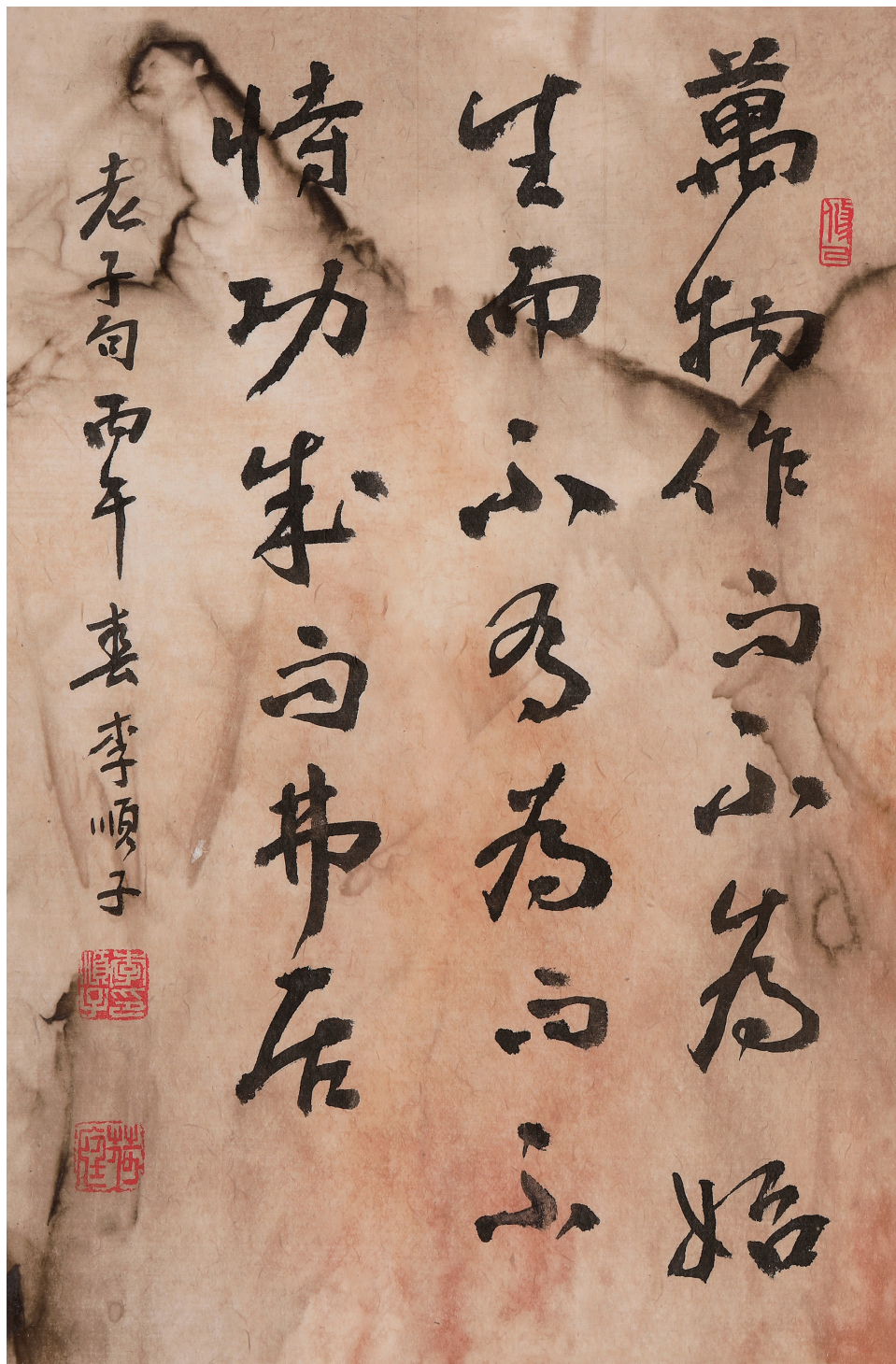
希言自然故飄風不終朝驟雨  
不終日孰為此者天地不  
能久而況於道乎天地  
之道亦於德者同於德  
者失之者道同於德者  
不於同者失之者道同  
信焉者失之者道同

老子道德經二十三章丙午五月吉日荷庭李順子

노자 · 도덕경 23장

노자 · 도덕경 2장

萬物作而不爲始  
不爲始生而不有爲而不恃  
功成而弗居  
만물을 지으면서도 앞서지 않고  
낳아도 소유하지 않는다.  
행위를 하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성공해도 거만해지지 않는다.



하정 이순자 荷庭 李順子

부산미술협회 초대작가, 심사 /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청남회호대상전 초대작가, 심사 / 부산서예비엔날레 초대작가  
제1회 개인전(부산시청 제1전시실)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225, 204동 1104호(벽산블루밍)  
Mobile : 010-4929-5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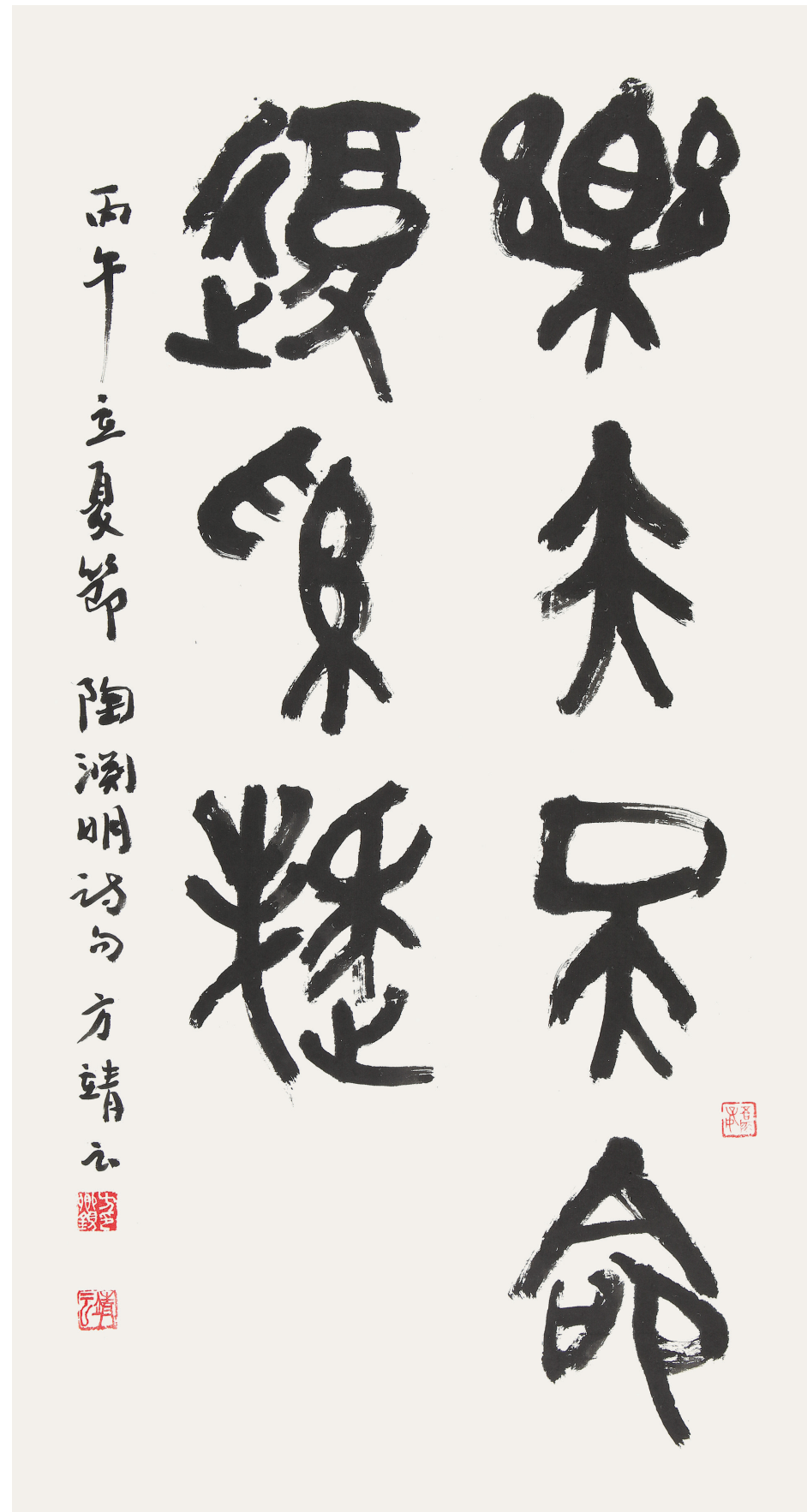


福



정운 방경은 靖云 方卿銀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회, 입선 1회  
김해시 김해대로 2505번길 43, A동 101호  
Mobile : 010-6581-3007



樂夫天命復奚疑 낙부천명복해의  
주어진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이라.

도연명 · 귀거래사 句



誰知荒草野  
亦有好花叢

世愛牡丹紅栽培滿院中誰知荒草野二有好花叢色透村塘  
月香傳隴樹風地偏公子少嬌態屬田翁

鄭襄明先生詩·石竹花 乙酉年春 璠泉鄭默

鄭襄明 先生 詩 · 石竹花  
정습명 선생 시 · 석죽화

世愛牡丹紅 세애목단홍  
栽培滿院中 재배만원중  
誰知荒草野 수지황초야  
亦有好花叢 역유호화총  
色透村塘月 색투촌당월  
香傳隴樹風 향전릉수풍  
地偏公子少 지편공자소  
嬌態屬田翁 교태속전옹

세상 사람이 붉은 모란을 좋아하여  
뜰에 가득 심어 놓았네  
누가 알리, 거친 들풀에도  
또한 좋은 꽃떨기가 있는 줄을  
빛은 마을 연못에 잠긴 달을 뛰어넘고  
향은 언덕 나무 바람에 풍겨 오네  
땅이 궁벽하니 공자가 적어  
아리따운 모습을 춘옹에게만 붙이누나

綠水青山幾萬重  
雲烟掩靄有無中  
居民但自知耕鑿  
淳朴依然太古風

鄭欽之先生詩一首  
乙酉年春 璠泉鄭默

鄭欽之 先生 詩 · 甲山邑館  
정흠지 선생 시 · 갑산읍관

綠水青山幾萬重 녹수청산기만중  
雲烟掩靄有無中 인연엄애유무중  
居民但自知耕鑿 거민단지경착  
淳朴依然太古風 순박의연태고풍

푸른 물 푸른 산은 몇 만 리 이던가  
구름 연기 자욱하여 보일 듯 말 듯 하여라.  
백성들은 스스로 밭 갈고 썸을 팔 줄 아니  
순박한 민심은 여전히 태고적 모습 지녔구나.

호천 정 목 璠泉鄭默

청남회호대회 초대작가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부산미술대전 서예부문 우수상 수상  
부산시 북구 상학로 36, 208동 1004호(이편한세상 금정산)  
Mobile : 010-7724-9179





調

證道歌句

古

神

清

風

自

高

丙午

立夏節

于林

金龍郁

龍

郁

龍

郁

證道歌句  
증도가 구

調古神清風自高 조고신청풍자고

곡조는 예스럽고 기운은 맑으며  
그 기풍은 저절로 높도다.

初發心時便正覺  
生死涅槃相共和

法性偈句

丙午

立夏節

于林

金龍郁

龍

郁

法性偈句  
법성계 구

初發心時便正覺 조발심시변정각  
生死涅槃相共和 생사열반상공화

처음 일으킨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곧 부처님의 경지에 든 것이요,  
생사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둘이 아니니  
부처와 중생, 세간과 출세간,  
사바세계와 정토세계가 둘이 아니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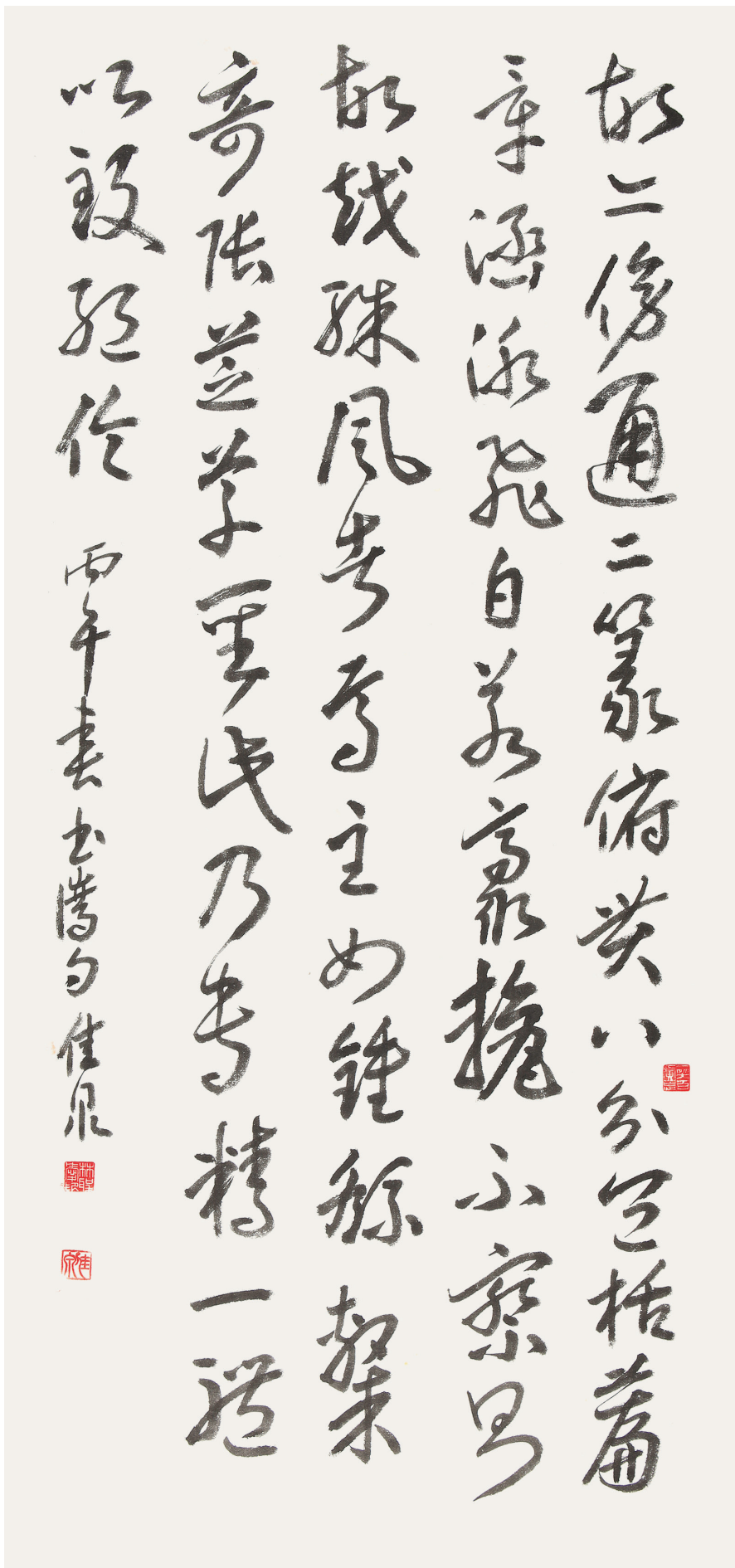


우림 김용욱 于林 金龍郁

부산미술대전 우수상, 특선·입선 다수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3회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로 13-5  
Mobile : 010-4170-2027





書譜句  
서보 구



석가모니 법어

自燈明 法燈明 自燈明 法燈明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법)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가천 임성애 佳泉 林聖愛

부산미술협회 특선 외 입선  
전국서도민전 입선  
청남회호대회 입선  
대한서가예술협회 입선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로 118, 103동 1001호  
(협성파닉스타운)  
Mobile : 010-2051-2201



尋眞誤入蓬萊島香風不動松  
花老採芝何處未歸來白雲滿  
地無人掃

録魏野詩 丙午春  
平庵河鍾吉

魏野 時・尋隱者不遇  
위야 시・심은자불우

尋眞悞入蓬萊島 심진오입봉래도  
香風不動松花老 향풍부동송화노  
採芝何處未歸來 채지하처미귀래  
白雲滿地無人掃 백운만지무인소

진인(眞人) 찾아 잘못 봉래도(蓬萊島)에 들어가니  
향기로운 바람 일지 않고 송화(松花)만 지네.  
어느 곳에서 약초(芝草) 캐고 돌아오지 않는지  
흰 구름 땅에 가득한데 쓰는 사람 없구나.

李伯 時・早發白帝城  
이백 시・조발백제성

朝辭白帝彩雲間 조사백제채운간  
千里江陵一日還 천리강릉일일환  
兩岸猿聲啼不住 양안원성제부주  
輕舟已過萬重山 경주이과만중산

아침 일찍 동트는 백제성을 출발하여  
천리 떨어진 강릉까지 하루 만에 돌아가네.  
협곡 양안의 원숭이 울음소리 끊어지지 않고  
내가 탄 조각배는 단숨에 수많은 산을 지내 왔구나.

朝辭白帝彩雲間  
千里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住  
輕舟已過萬重山

丙午春  
平庵河鍾吉



호암 하종길 平庵 河種吉

청남회호대회 초대작가  
전국서도민전 초대작가  
부산서예대전 초대작가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80번 가길 8  
Mobile : 010-9720-6975



石勢龍頭壓 禪居鳥夢空  
 霽雲生瀉底 靈液滴房中

錄山房窟寺磨崖銘詩 丙午夏 步就 姜旬宣

山房山  
산방산

石勢龍頭壓 석세용두압  
 禪居鳥夢空 선거조몽공  
 霽雲生瀉底 재운생사저  
 靈液滴房中 영액적방중

바위의 형세가 용의 머리를 누른 곳  
 스님이 살아 새들은 잠잘 곳을 잃었네.  
 내뿜는 물 밑으로 맑은 구름 솟아나고  
 신령스런 물방울 방 안에 똑똑 떨어진다.



蘭自蘭  
난자란

소암 현중화 書, 강순선 刻



보취 강순선 步就 姜旬宣

제주도미술대전 서각부문 초대작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118-6  
 Mobile : 010-7430-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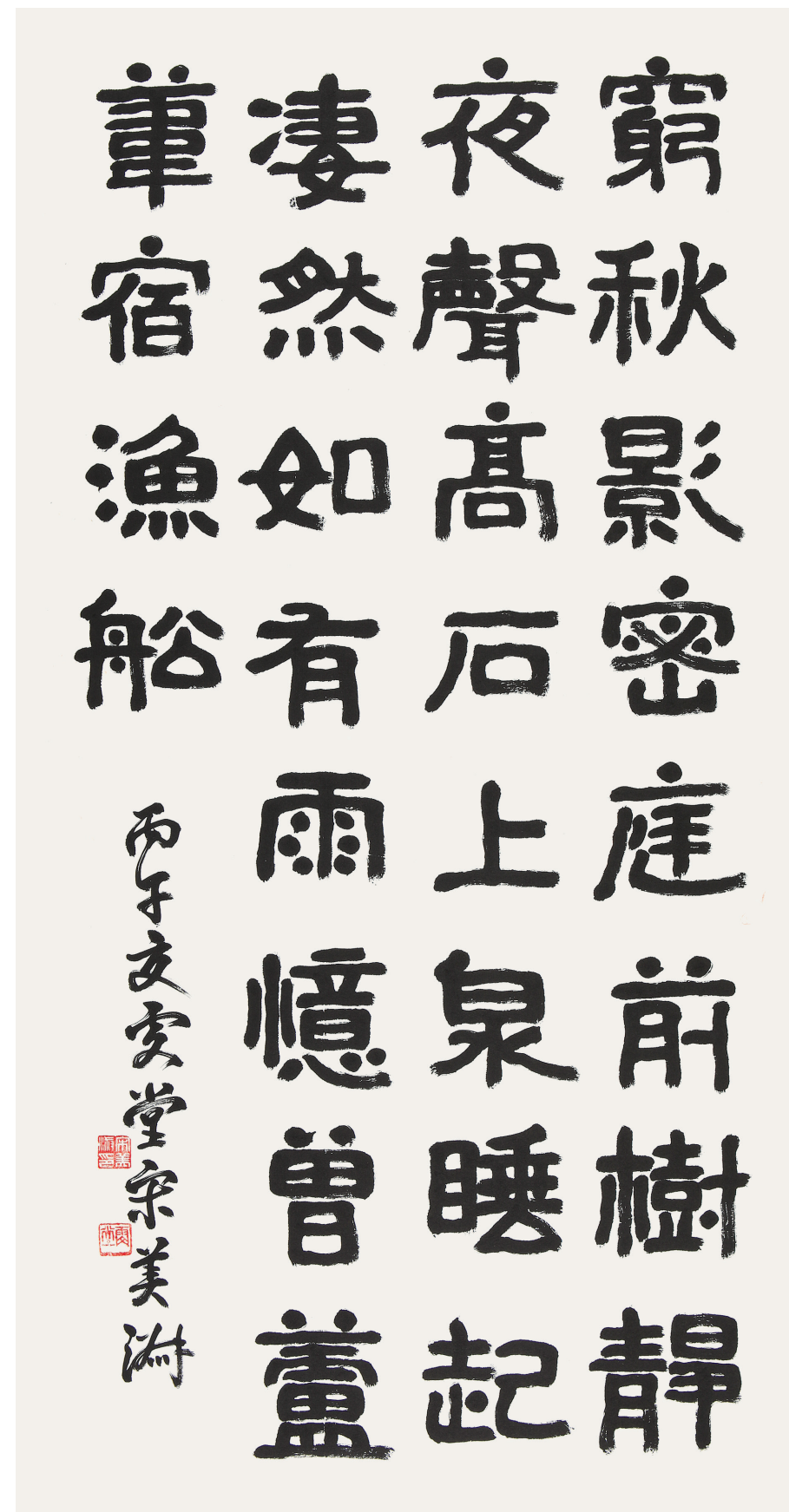
滿堂和氣  
만당화기

집안에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니 좋은 일만 생긴다.



문당 송미숙 雯堂 宋美淑

부산서예비엔날레 초대작가  
부산미술대전·전국서도민전 특선 및 입선 다수  
전국청남회호대상전 입선 다수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20, 107동 1402호  
Mobile : 010-7573-0473



窮秋影密庭前樹 구추영밀정전수  
靜夜聲高石上泉 정야성고석상천  
睡起淒然如有雨 수기처연여유우  
憶曾蘆葦宿漁船 억증로위숙어선  
가을 끝물 마당에 나무그림자 뻗백하고  
고요한 밤 석간수 소리 귓가를 맴도네.  
싸늘함에 잠깨어 비 내리나 싶었더니  
갈대밭 고깃배 대는 소리 기억나누나.

金富軾 先生 詩  
김부식 선생 시





장미



수빈 박명호 秀彬 朴明鎬

관설당서예대전 입·특선 다수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2길 37,  
 큰소나무집  
 Mobile : 010-4484-6883



해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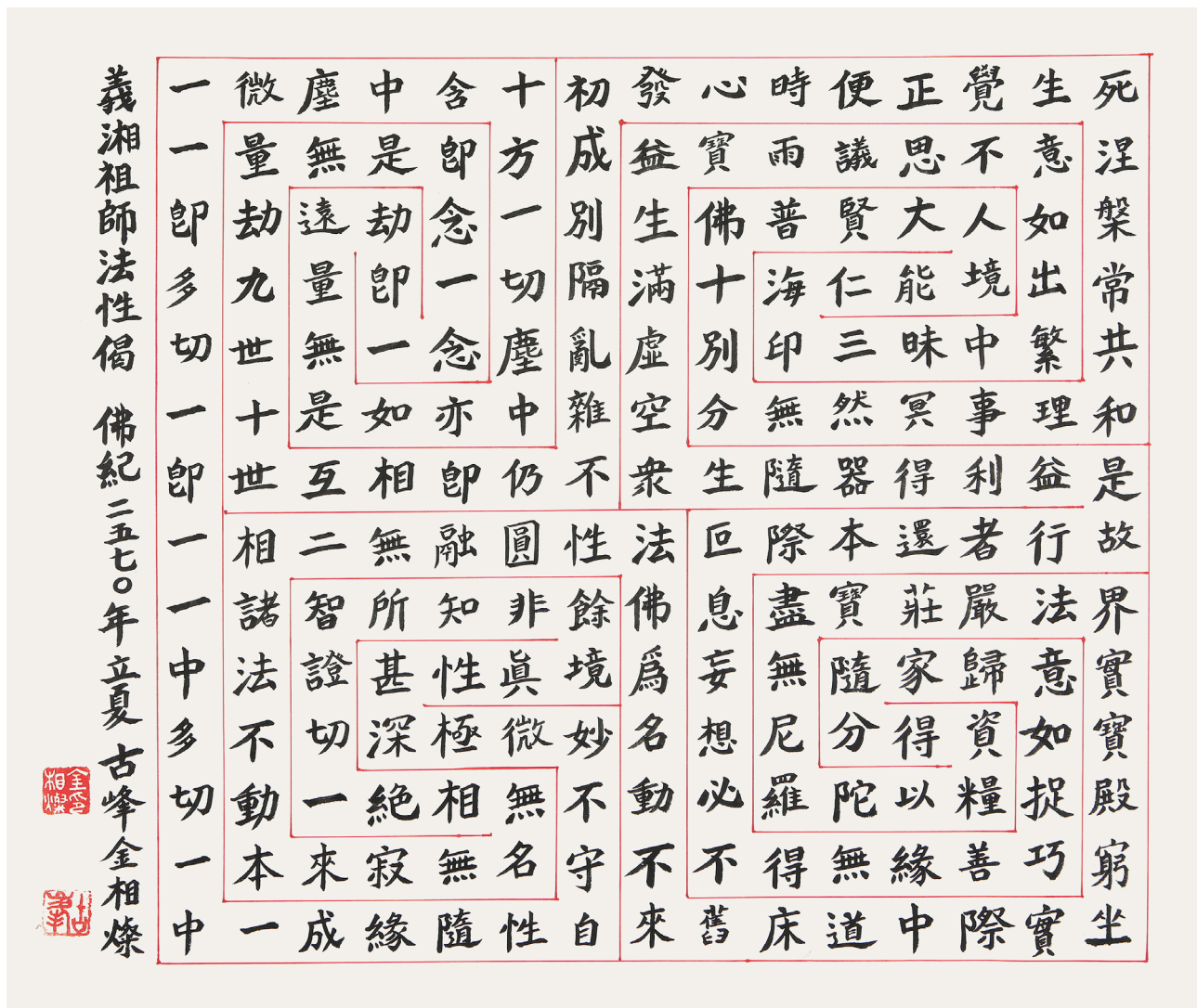
金剛經偈頌句  
應無所住而生其心

丙午 立夏節 古峰 金相燦



金剛經 偈頌句  
금강경 계송구

應無所住 而生其心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라.



法性偈  
법성계



고봉 김상찬 古峰 金相燦

관설당전국서예대전 우수상, 입선 2회  
부산미술대전 입선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길 45  
Mobile : 010-3563-6541



2026  
國際書法藝術聯合 釜山支會展  
- 서예와 함께하는 영남의 절경 -

인 쇄 일 2026년 6월  
발 행 일 2026년 6월

발 행 처 (사)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영남지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42-1, 3층  
Tel. 051-805-4122

제 작 처 보문 Design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0,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본 도록은 2026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